

연못골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연못골 제 620호

4-5



24P/ HI청년공동체

HI청년 교제의 중심, 각양각'셀'

6P/ 연중특별기획(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32P/ '그때 우리 교회는'(2)

광주의 오월,
민중의 아픔과 연대한 연동교회

48P/

둘레박 민선 집사와

웃두우뽀리뽀 가시죠!

설만한 물가

우리들의 인내심이 끝난 곳.

사는 게 도대체 왜 이려냐고 묻고 싶은 사람들은 하늘을
본다.

별 불 일도 없는 삶이라서
별이라도 보는 일이 은전처럼 베풀어지는 거겠지만

사감이간
후회의 편에서 만들어지고
기도의 편에서 완성된다고 할까.

부드럽게 호소해도 악착스러움이 느껴지는,
그 많은 간구의 눈빛과 목소리를
신은 어떻게 다 감당하고 있는 걸까.
콩나물처럼 자라 올라오는 기도들 중에서
제 소원은요 다른 사람 소원 다 들어주고 나서 들어주세요.
하는 물려빠진 소원도 없지는 않겠지만.

결국 우리가 밭 딛고 선 곳

그러니까 풍문과 추문을 지나
포기와 기도를 지나

개양귀비 뺨을 어르며 불어오는 바람이
가까운 진흙탕 위로 내려앉는 것을 본다.

아무리 많은 우물이라도
바닥 사정은 비슷하다.
그러므로 함부로 획짓지 말 것.



CONTENTS

2025년 4- 5월호

04 이달의 말씀

콘클라베와 사람 세움 김주용 위임목사

06 연중특별기획-2025년 한국교회 트렌드(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12 장로 선거와 피택장로 소감

16 안수집사, 권사 선거 공고

17 선교비전학교 안내

연못골 광장

18 1018예수사랑 조금씩 성장하는 나 전하은 성도(중등부 3학년)

19 2030새벽이슬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119구급대원 김보성 성도(HI청년부 하두리셀)

20 4050광장 슬기로울 은퇴생활 김인교 집사(분당구역)

21 살며생각하며 “미운 오리 새끼” 동화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이호진 장로(강서구역)

청년광장

22 HI청년부 친교와 봉사와 교육과 기도의 봄날, 하이청년들

24 HI청년부 셀 소개 HI 청년공동체 교제의 중심, 각양각'셀'

주님과 함께하는 삶

27 올바른 신앙 용어

28 성경의 향기를 찾아서(3) 십과 기쁨을 품은 열매, 사과 김환 목사

30 소그룹 탐방(2) '즐데 교제'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연동테니스선교회”

32 그때 우리 교회는(2) 광주의 오월, 민중의 아픔과 함께한 연동교회

선교

34 선교지에서 온 편지 남미 페루에서 불어오는 선교 소식 안길태·박지원 선교사

36 중국어예배반 서울 시티투어와 부활절을 통한 중국유학생들의 선교와 복음 박점분 목사

37 필리핀예배공동체 지역을 넘어, 세상을 잇는 복음의 WIN-Seoul 제자훈련 여정 Abel Raby 목사

청소년주일학교 소식

38 청소년주일학교

46 '어린이'와 '책'을 위한 "책바자회"와 그 후 / 토요약기교실 떡볶이파티

47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연못골 사람들

48 왓두유쁘리빙(2) "돌레박 민선 집사와 함께하는 재즈"

50 HI연동청년, 창업/직업도전기(17) 회화작가 구자현

52 새신자 어게인(20) "교회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며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선희 성도(길음구역)

54 신임목사 인터뷰 "이건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56 상담 바우처 안내

58 지체들

67 교회 첫 출석 아기

68 새가족 소개

77 연동복지재단

78 신탁 현황, 목양위원회

79 연동컬러링

제목: 사과와 사과꽃

크기: 220 X 220mm

재료: 색연필

제작일: 2025년 5월

그림내용: 아담과 하와가 먹은 선악과를 사과라고 인식할 만큼 사과는 누가 봐도 먹음직, 보암직 매력 있는 과일입니다. 탐스럽고 아름다워 성경에서도 귀하게 대접 받으며 등장합니다(아가서, 잠언). 사과꽃이 피는 4~5월이면 봄 바람도 꽃잎처럼 달큰해집니다.(더 많은 내용은 이번 호 28p에서-편집자주)

작가: 김정혜 권사(개포수서구역)



콘클라베와 사람 세움

제266대 로마가톨릭의 수장인 교황 프란치스코가 지난 4월 21일 88세의 나이로 선종을 했습니다. 추모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교황을 뽑고자 5개 대륙, 70개국의 추기경 133명이 참여하는 콘클라베(Cum Clave, 열쇠로 문을 잠근 방)를 열었습니다. 콘클라베는 로마가톨릭교회가 교황을 선출하기 위해 각국의 추기경으로 이뤄진 선거인단의 선거 과정을 말합니다. 선출 과정은 시스티나성당에 선거인단인 추기경들이 모여 새로운 교황이 뽑힐 때까지 3분의 2 이상의 뜻을 모읍니다. 그렇게 새로운 교황이 결정되면 바티칸 굴뚝에 하얀 연기를 내보내 교황이 선출된 것을 알립니다. 2025년 5월 9일, 그 굴뚝에 하얀 연기가 올라갔고, 역대 최초 미국 시카고 출신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이 제267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음을 알렸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플라톤은 “정치에 무관심하여 받게 되는 가장 큰 벌은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 받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은 자신을 다스릴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리더를 선출하여 세우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일이며, 그에 걸맞은 진중한 과정과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좋은 지도자를 뽑기 위한 진중한 과정을 거룩하고 형이상학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개봉한 영화 ‘콘클라베’는 지난 4월에 죽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상황이 연결되어,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 더욱 깊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다고 믿는 교황을 뽑는 과정인, 로마가톨릭의 자량이자 역사와 전통이 있는 콘클라베조차도 결코 완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콘클라베에서 만장일치가 아닌 3분의 2의 득표로 교황이 된 추기경은 자신을 찍지 않은 3분의 1의 추기경을 비롯해 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겸손히 교황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화에서 콘클라베 중 추기경들 사이에 수많은 정치적 견해들과 사목 가운데 발생한 여러 추문들 속에서 어떤 추기경은 후보군에서 배제되기도 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유력자가 새롭게 등극하는 등 드라마틱한 과정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없는 신의 개입과 같은 것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곱씹게 하는 것은 그렇게 선출된 교황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정치



김주용 위임목사

적 암투 속에서 좁혀져 가는 교황 후보군을 보면서, ‘저 교황이 모든 신도의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 속에 교황의 선출 과정마저도 ‘거룩’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새로운 항존직 선거를 진행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 표씩을 행사한 성도들의 선택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피택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선택을 받으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면 거룩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피택자들은 주변사람들의 이야기에 인간적 판단을 하듯 머뭇머뭇하시면 안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좌우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가볍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항존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책임과 사역에 최선을 다하며 이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자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선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오히려 반대로 피택 과정은 결코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피택 되신 분들 가운데 정말 무심(無心)으로 의연하셨던 분이 몇 분이나 계셨을까요?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이번 선거도 물론이요, 이전 수많은 교회 내 선거를 통해 보았을 때, 사심이 없었던 분은 단 한 분도 없었습니다. 특정 피택자를 두고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연약한 죄인된 모습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택 된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선택되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동시에, 거룩에 이르지 못하는 교인들이 필요 충분하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판단에 따라 대변하여 표를 던졌기에, 선거 이후 피택 받은 자나 그들을 선출하기 위해 투표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립니다. 겸손하십시오.

더불어, 대한민국도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기도하여 사람을 세우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며 그 어떤 작은 목소리에도 경청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결과에도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기도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연중특별기획〉

1. 프롤로그, 유반젤리즘
2. 신앙 양극화, 가족 종교화
- 3. 평신도 사역, 선교 트렌드**
4. 정신건강, 싱글 사역
5. 20대 청년세대, 고령 교인 사역
6. 교회의 세속화, 에필로그

연중특별기획팀: 박윤신, 이경아, 임재철, 진상협 기자, 박현미 편집장

평신도 사역(포텐셜 레이어티 Potential La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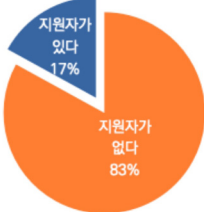
최근 한국교회에서는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과 신학교 지원자 감소로 인해 평신도의 사역 참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 교회에서는 부교역자나 교육전도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인해, 경험과 은사를 가진 평신도를 선발하여 일정 수준의 훈련과 교육을 거쳐 사역에 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목회자 영역의 상당 부분을 평신도가 대체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가정예배, 온라인 예배, 소그룹 활동 등에서 평신도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새가족 교육, 심방, 신앙지도, 성경공부, 기도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평신도가 주체적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타 평신도 사역의 장점으로는 외부 교역자가 새로 왔을 때처럼 교회 적응할 기간이 불필요하고 성도들을 잘 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평신도 시대의 도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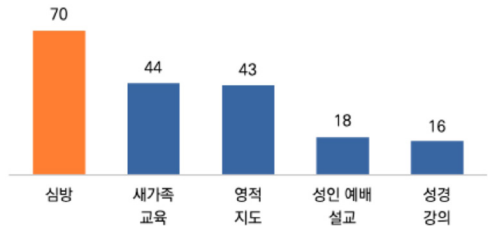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에서는 2014년 제98회 총회에서 '평신도 교육사' 과정을 이미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평신도 교육사 제도는 교육전도사가 부족한 교회를 중심으로 평신도가 교육전도사 사역을 대신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기초 군사훈련'으로써 수료 후 소속 교회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신구약 성경 내용과 교육사의 정체성, 교회교육, 공과, 예배 이해 등 교회 사역 전반에 필요한 실무를 배우게 됩니다. 기본과정, 심화과정, 워크숍 순으로 진행하며 현재는 1년 2학기제 22주 교육 과정을 진행중입니다. 전남 광주동호회 예장통합 총회 교육자원부와 함께 '평신도 교회학교 교육사 교육 과정'을 진행해 2023년에 72명의 평신도 교육사를 배출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예장통합은 교단 차원에서 정체성, 사례, 커리큘럼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주일학교 운동의 시작도 평신도였고, 이제는 평신도가 목회자의 보조역할이나 봉사자 수준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림] 전임전도사/부목사 지원자 상황



[그림] 시무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는 사역* (목회자, 상위 5개, 중복응답, %)



*기타 응답은 제외

담당목사에게 현재 시무하는 교회에서 평신도가 하는 사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0가지 사역 분야 중 '심방'(70.0%) 이 압도적이고, '새가족 교육'(44.2%), '영적 지도'(43.2%), '교육부서 설교'(32.0%), '성인예배설교'(18.4%), '성경 강의'(15.8%), '전 교인 기도회 인도'(15.5%) 순이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서 설교'는 설문에 참여한 전체 교회의 3분의 1 정도가 평신도가 담당하고 있어 교회 내 부교역자 구인난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교회 규모가 클수록 평신도들의 사역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는 탈기독교 시대에 교회가 직면한 위기 속에서도 에클레시아를 넘어 디아코니아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되어 교회와 사회, 세계를 향해 하나님나라를 확장할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역의 여덟 가지를 제시한 폴 스티븐스가 말한 "평신도"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라오스'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고, 일반 성도들과 목회자는 모두 "하나님의 평신도" 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교회 전통에서는 권서인과 전도부인이라는 좋은 평신도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권서제도는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으나 오늘날에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도부인은 한국 선교 초창기에 문화적인 차이로 외국인 남자 선교사들이 여성에게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을 때 남성을 대신해 복음전도 사역을 수행한 부인들을 말합니다. 다양한 현대판 권서인과 전도부인이 출현할 수 있도록 교회는 평신도를 해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평신도 사역이 교회의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가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평신도 사역 역시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합니다.

♥ "한국교회트렌드2025"에서는 평신도 사역에 대해 설교, (취미활동이 아닌)소그룹 모임 리더, 양육 상담자, 은사 중계, 작은 예배 인도자, 이웃 전도, 가정 사역자 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의 경우, 평신도 사역에 대한 생각과 방향, 계획이 어떠한지 김주용 위임목사께 질문 해보았습니다.

Q.1 우리 교회의 경우, 평신도 사역 트렌드에 대해 어떤 고민 또는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동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가 협력해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목회자 1인 또는 소수 교회 지도자로 움직이는 대다수 교회에 비교해 평신도의 참여가 월등히 높은 교회입니다. 1대 고찬익 장로가 천민으로 평신도 지도자가 된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연동교회는 목회자와 함께 협력 목회를 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고, 위임목사인 저도 그와 같은 목회 방향을 지키고 있습니다. 단지, 평신도 사역이 부족해 보인다면, 착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교회 근방에서 출석하던 80% 이상의 연동교회 성도들이 서울 외곽으로 이동하면서 전과 같은 평신도 사역을 다하지 못하는 것일 뿐, 전체 사역의 구조와 내용은 평신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전문 사역자나 재정, 제작부서 등의 구조는 평신도 사역에 적합하나,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평신도들의 집이 물리적인 거리감을 가지고 있어 전보다 활동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연동교회는 이제 좀더 목회자와 같은 전문 사역자에게 책임있는 목회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어야 하고 역으로 창조적 소수에게 진취적으로 비전을 추진할 위임과 신뢰를 줄 필요가 있습니다.

Q.2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사역이 어디까지 수용 가능하고 추진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이미 많은 부분 평신도 사역이 중요한 영역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목회자의 목회철학과 비전과 잘 협력하여 부흥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3 평신도 사역에 있어서 연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걸림돌은 무엇인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대로, 전과 다르게 평신도의 주거지 이전으로 물리적 거리가 멀어져, 과거와 같은 활발한 평신도 사역을 행할 수 없는 것이 큰 걸림돌입니다. 그러다 보니, 현장을 모른 채, 말과 입으로만 목회자들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을 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평신도만 중심이 되거나 목회자에게 편중된 사역이 진행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균형과 조화가 이뤄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 트렌드(미션 비욘드 트래디션 Mission Beyond Tradition)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법과 전략을 모색하는 '미션 비욘드 트래디션(Mission Beyond Tradition)'은 한국교회 선교의 중요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국제 사회의 변화와 함께 세계 선교 흐름도 급변하고 있으며, 지금은 적절한 변화와 선택이 필요한 시대를 한국교회가 맞고 있습니다. 1990년 냉전시대가 종료되며 부상한 '세계화'(Globalization)와 지속된 '도시화', '인구이동', '기술발전', 그리고 '세계 기독교' 등이 주된 환경변화의 요인들입니다. 국제로잔 서울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에서 매튜 니어만 교수는 미래와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째, 2050년까지 세계 선교 환경에 있어 지배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둘째, 2050년까지 세계 복음화에 가장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은 무엇일까? 첫 질문에 대한 리더들의 압도적인 선택은 '기술발전과 AI'였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가장 우선된 선택은 '기도'였고 그 다음이 '기술발전'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교회는 이주민 선교, 총체적 선교, 미디어 선교 등 부상하는 선교 영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난민 등을 대상으로 한 선교로, 국내에서도 세계 선교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총체적 선교는 복음 전파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회적 섬김을 포함하는 선교 방식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합니다. 미디어 선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온라인 예배, 유튜브 콘텐츠, SNS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특히 젊은 세대와의 소통에 효과적입니다.

선교 트렌드 전망 및 시사점

이제는 한 사람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나아가 선교는 시대와 상황에 매우 민감한 활동입니다. 새로운 선교 전략은 한국교회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선교의 지평을 넓히고, 다양한 문화와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교회는 일상 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선교가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님 선교의 일부가 되는 삶을 말합니다. 또한 선교적 필요를 바로 판단할 시대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선교 강국 모드에서 선교 선진국 모드로 전환해야 합니다. 강국이 단지 힘과 우월성을 가진 나라라면 선진국은 가치와 영향력을 나누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성령의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지? 성과주의에 빠져 기능과 결과만 의지하지 않았는지? '성령의 존재감'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해 시대와 세대에 부합하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시도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 이러한 선교 트렌드에 관해 김주용 위임목사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Q. 미디어 선교, 문화 선교, 캠퍼스 선교, 직장인 선교, 의료 선교, 이마용 선교 등 선교에 다양한 주제가 있는데, 이 중 연동교회에서 좀더 활성화했으면 하는 부분에 대해 알려 주십시오.

최근 상황에 맞춰 미디어 선교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더불어 연동교회가 위치한 대학로의 포지셔닝에 따라 문화 선교도 계속해서 더 나은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크진 않았지만 사역을 지속했던 직장인 선교도 다시 재정비하여 주중 지역사회의 섬김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의료 선교는 국내지역보다는 해외 단기선교에 반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이마용 선교는 복지재단을 통해 이웃 섬김으로 계속해서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 선교 트렌드에 대한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Q. 세계선교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선교사 지원, 사역지 방문) 외에 무엇을 더 할 계획이 있으신지요?

연동교회의 세계선교를 위한 활동은 교회 내 특별위원회인 세계선교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내 타 조직들과 비슷하게 신규 인원의 유입이 정체되어 중·장년층 위주의 회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세계선교를 위한 조직 자체는 다양한 세대를 폭넓게 수용 가능하지만, 교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점이 있어 청년부 모임, 신임집사교육 등에서 설명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의 세계선교는 현재의 중·장년 위주의 활동에서 온 세대로 활동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어서 전통적인 선교활동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며 여러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여름의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단기선교는 청년부와 장년부가 함께 참가해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으로 앞으로 진행될 선교사역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연동교회의 대표적인 이주민선교기관인 중국어예배반을 지도하고 있는 박점분 목사의 의견을 소개합니다.

Q.1 이주민(중국인)을 중심으로 예배를 전담하시는데 현재 어떤 어려운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친 후,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일부 유학생들은 한국에 남고자 하지만, 외국인으로서 한국 사회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일은 쉽지 않아 장기적인 정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존 유학생이 떠난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도가 필요하지만, 캠퍼스의 전도 활동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가까운 성균관대에서

전도 활동을 해왔으나 유학생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 교회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난 시간 동안 겪고 있습니다. 특히 음악 부분에 부족한 인적 자원이 뚜렷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은사를 지닌 인도자나 반주자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더해 재정적인 한계도 있어 현실적인 제약도 받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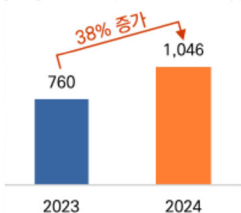
Q.2 중국어예배반에서 교회나 교인들께 구하고 싶은 협조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현재 중국어예배는 유학생, 근로자, 한국인 함께 모여 중한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특히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으며, 예배가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찬양 반주자, 또는 드럼으로 섬겨 주실 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일꾼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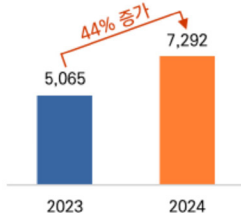
Q.3 앞으로 연동교회의 이주민 예배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야 할까요?

예전과 달리, 사회문화적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그들의 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단순히 교회 안으로 청하는 전도가 아니라 그들의 회로애락을 이해하고, 이방인이 아닌 이웃이자 친구로 함께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맞아들이는 전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본국에서 복음에 대해 들어보지 못한 이들을 복음의 자유가 있는 한국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이곳에서 복음을 접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들고 본국으로 돌아가 그들의 소속된 도시와 사회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으면 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해보니 이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훈련을 받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까지 실감하며 필요성을 공감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주민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림] 선교사 파송 훈련 참가자 수 (명)



[그림] 1년 미만 단기 선교 활동 참가자 수 (명)



※출처 :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한국선교연구원(KRIM), 『2024 한국선교현황』, 2025.03.12. (228개 선교단체와 교단, 온라인 및 전화, 이메일 2024.11.22.~12.31.)

Note) 단기 선교사의 정의 : 타문화권에 나가서 1년 이상 2년 미만으로 선교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인으로 정의함.



장로 선거

▶ **일정:** 4월 27일(주일) 장로 1차 선거

5월 4일(주일) 장로 2차 선거

5월 11일(주일) 장로 3차 선거

▶ **투표 시간:** 오전 7시 30분~오후 3시

▶ **투표 장소:** 교회 마당

▶ **선출 인원:** 장로 10인

▶ **투표 방법:** ① 연동교회 교인으로 18세 이상 입교, 세례 교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② 교회 마당 지정된 장소에서 스마트 성도 앱의 교인 QR코드로 선거권 확인 후, 투표 용지를 받아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용지는 반으로 접어 투표함에 넣는다.

▶ **장로 후보자:** 28명 중 10명 선출(당회 공천순)

장동철, 강석주, 이규성, 김찬진, 김성동, 정금실, 이만희, 전해철, 김형기, 박종화, 민홍기, 방영호, 이창섭, 황보성목, 이혜석, 김 진, 김경희2, 이상민, 오길환, 박현철, 이성춘, 김원장, 정호연, 송대현, 권명석, 이은미, 송상경, 정윤석

▶ **장로 피택자(득표순)**

강석주, 이규성, 박종화, 정금실, 김찬진, 장동철, 김형기, 이만희

〈피택장로 소감〉



강석주 피택장로

‘부르심과 섬김’의 자리에 피택되어 두렵고 떨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1:7) 저로 인하여 형통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저는 죄인이라 제 힘만으론 그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축복과 한량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그리고 약하고 능력 없는 자를 지혜롭게 하시고 하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맘을 부드럽게 하시며, 하나님의 뜨거운 인류 구원의 역사에 변화와 능력을 받아 담대하고 강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



이규성 피택장로

저는 수많은 제사를 지내던 종갓집 장손으로 태어나, 예수님을 단지 남의 이야기처럼 여기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신앙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날선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45세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그제야 제 삶에 결코 우연이란 없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나온 모든 죄와 고난은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기 위해 허락하신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 은혜로 인해 저는 오늘, 피택장로라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다고 해서 삶이 단번에 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반드시 달라져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감이라 믿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흔들림 없이 말씀과 기도로 제 자리를 지키며,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장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젠가 천국에 부름 받는 날, 위로예배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제 삶을 돌아보시며 “이규성 장로는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하셨던 분이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위로요 감사가 될 것입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시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박종화 피택장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시… 나도 주님께서 써 주실까? 그러면 좀더 살 수 있을 텐데…

제 삶의 가장 어두웠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섭리를 더욱 깊이 깨닫습니다. 진즉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했어야 할 저를, 아직은 이 땅에 남게 하시고 새로운 직분까지 맡겨주셨습니다. 피택은 되었지만 과연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셨겠지요.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순종하지 않는 것도 교만이라는 은퇴장로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주시고, 과분한 사랑을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금실 피택장로

‘피택을 축하합니다’며 카톡과 문자가 울렸다. 기쁨과 감사보다 한숨이 나왔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떠 났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떠 났우고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요 21:18).

2022년 시작된 정서불안과 우울, 2023년 10월까지 진행됐던 공황장애, 2024년 1월 엄마의 천국 환송으로 피 말리는 듯한 ‘광야 시간’이 있었다. 이후 ‘너가 먼저 공황장애를 경험했으니 교회와 네 주변에 있는 사랑이 고된 우울한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피고 보듬어라’는 주님 음성이 느껴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아무 것도 가진 거 없는 세상 고아인 부족한 나에게 거는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오직 예수 깃발 높이 들고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이리라.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연동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외쳐본다. 여호와닛시!!!



김찬진 피택장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요 9:41). 죄인에 불과함을 고백하고 회개해야만 하는 저로서는 더욱 더 낮은 자세로 살아 계신 하나님과 연동교회를 섬기는 중으로만 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경외로우심을 부단히 찬양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주신 아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마 10:28). 감사합니다.



장동철 피택장로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맡는 것을 바라지는 않았다. 장로가 된다는 것은 항상 스스로를 살피서 여러 성도의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야 하며, 또한 교회의 현재를 정확히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태도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무엇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스스로를 살피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 아닌가 싶다.



김형기 피택장로

부족한 저에게 연동교회의 장로라는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주시고 지지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섬길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인간적인 생각과 부족함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도우심만을 간구하게 됩니다. 앞으로 저의 역량을 기꺼이 바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부흥을 위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또한 위임목사님과 부목사님 그리고 모든 장로님을 도와 교회의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나아가겠습니다. 혹여 부족한 모습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권면해주시고, 교회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동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만희 피택장로

제게 장로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공동의회가 진행된 3주 동안, 마땅히 먼저 장로로 피택되었어야 했던 여러 선배님들의 헌신과 기도, 교회를 향한 사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장로로 피택해주신 성도들의 목소리에 앞으로 귀기울이고, 당회원들과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교회를 섬기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의회 속회 공고

당회의 결의(헌법 제90조 제2항에 의거)로 공동의회를
아래와 같이 속회합니다.

1. 날 짜 : 2025년 5월 18일(주일)
2. 장 소 : 연동교회당
3. 안 건 : 안수집사 10인, 권사 20인 선거의 건
4. 후보자 명단(당회공천순)

안수집사후보

박홍열 이규진 김영복 김인교 유기정 김현정 김태곤
김동열 김윤태 노환규 최명식 정영석 이승원 조형욱
남득현 육경민 김종원 김태정 이학주 고희석 김희석
전희재 윤복기 김선일 장재필

권사후보

정경아 배광미 박재연 이향이 김이선 김수진 이현승
김희경 박영란 최문경 양미자 우일애 김지영1 서경희
신효덕 김현정2 우윤지 이선아 박혜란 이대진 길정순
김세라 오수희 한상정 장의숙 김은주 강윤희 박윤신
공혜경 양진실 이은영2 최은숙1 한선순 김은실 김수연2
김경아 조희정 정선아 박성윤 윤은숙 심태연 박성미
김은희1 김미정2 이정순

2025년 5월 1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연동교회
공동의회 의장 김 주 용

2025년 청년/장년 인도네시아

선교비전학교 커리큘럼

YD Mission Seminar Curriculum

테 마 : 강의식 교육

- 선교에 관심이 있는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선교적 마인드를 배운다.

일 시 : 주일 오후 4시 30분 - 5시 30분(약 1시간)

장 소 : 가나의 집 4층 아가페홀

대 상 :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

날짜	주제	강사
5월 4일	YD 선교의 비전 : 화해를 통한 선교 비전	김주용 위임목사
5월 18일	성경 속의 선교 : 친구약을 통한 선교의 출발	계대운 목사
6월 1일	단기선교에 대한 올바른 이해	계대운 목사
6월 8일	현대 선교의 이슈 : 21세기의 선교 이해	김환 목사
6월 15일	타문화 선교의 실제 : 아시아 선교(인도네시아)	박주안 목사

- 5월 18일에는 바베큐 파티가 예정 되어 있어 4시에 시작 예정입니다.

문의

▶ 장년부 : 김환 목사(010-5261-9944)

▶ 청년부 : 박주안 목사(010-3447-3483)

조금씩 성장하는 나



전하은 성도
(중등부 3학년)

저는 조용한 성격이라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발표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는 수행평가 때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해야 하는데,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주일이나 성탄절에는 찬양활동을 여러 명이 같이 나가니까 그나마 덜 창피하지만 예배시간에 성경봉독이나 기도를 맡게 되면 실수할까봐 며칠 전부터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많은 저와 달리 어른 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찬양활동을 하는 친구들이나 동생들을 보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라는 생각을 하며 부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생이 되니 걱정이 덜 되고, 조금씩 용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등부에서 3학년이 되어 서기로 임원을 맡다보니 어쩔 수 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 서야 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특히 올해 1월에 있었던 중등부 수련회를 위해 임원회의를 하면서 제가 아이디어도 내고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다 보니 부끄러움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하면 창피하다고 느낄 일들도 교회 친구들이 함께 하니깐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저는 2월부터 '연동토요악기교실'에 나가서 레슨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레슨만 받으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열심히 배워서 주니어양상블에 들어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행사 때마다 주니어양상블이 연주하는 것을 보고, 앞에서 많이 떨릴 텐데 엄청 용기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악기교실에서 매주 연습을 하니깐 저도 주니어양상블에서 같이 연주해 보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생겼습니다. 토요악기교실에 나가면서 '러브릿지온' 봉사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봉사를 나갈 때 부끄러워서 어르신들께 어떻게 인사를 할까 걱정했는데, 청년부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니깐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나를 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조금씩 관심이 생긴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4월 13일에는 연동교회에 입교하였습니다. 작년에 오빠가 입교하는 것을 보면서 앞에 나가서 목사님께 목걸이를 받을 때 엄청 떨릴 것 같았는데, 막상 목사님 앞에 섰는데 떨리지 않고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입교를 하고 나니 교회나 학교에서 조금씩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때 4월 입교자 중에서 제가 대표기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온 교인 앞에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여러 명이 찬양활동하는 것도 창피해서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대표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매일매일 걱정이 되었고, 학교 시험 기간도 겹쳐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부 전도사님들이 응원해 주시고 부모님도 도와주셔서 걱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떨지 않고 대표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웬지 모를 용기가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조금씩 자신있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연동교회에서 조금씩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119구급대원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병원 SMICU(Seoul Mobile Intensive Care Unit)라고, 서울시 중증 환자공공이송센터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드리자면, “달리는 중환자실”로 불리는 이 시스템은 국내 최초로 서울대학교병원에 도입되었으며,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를 이용해 중증환자를 병원 간에 이송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입니다. 의사, 처치팀, 운전팀이 한 팀을 이루어 중증 환자 전담 이송을 담당하며, 서울권역의 재난 대응 기관으로서 다수 환자가 발생하는 재난 현장에 출동해 의료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보성 성도
(비청년부 하두리셀)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시절 ‘몇백억의 돈보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자’라는 생각으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며 품었던 “흐릿한 꿈” 때문입니다.

그 무렵 어머니와 할머니는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노력하시던 중이었고, 그 시기에 아버지는 일하시다 철골에 부딪혀 목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대응을 잘해주신 구급대원 덕분에 장애 없이 회복되었고, 병실을 찾은 고향 교회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아버지는 어린 시절 집을 떠났던 할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향 교회의 건축 사역에 헌신하시며 장로 직분까지 맡게 되셨고, 하나님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셨습니다. 믿음 안에서 변화되어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구급대원의 꿈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일할 때 환자를 위해 출근 전 기도는 하지만, 근무 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거나 하나님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믿는다고는 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다 혹시 넘어질까 두려워 아예 기대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읽기를 시작했고, 아직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잘 모르겠지만 마치 작가의 의도를 읽어내듯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지금은 비록 넘어지지 않기 위해 한 발을 내딛어 기대는 정도이지만, 언젠가 그 내딛은 한 발도 모두 떼어 온전히 주님께 기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비전은 마태복음 15장 30-31절에 나타난 예수님처럼, 병자를 단순한 ‘환자’가 아닌 ‘한 영혼’으로 바라보며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하는 119구급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흐릿했던 꿈”이 “뚜렷한 사역”으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기대하며, 그 여정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슬기로운 은퇴생활



김인교 집사
(분당구역)

‘은퇴(Retire)’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그만두다, 물러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데, 다른 의미로 ‘Re-tire(타이어를 갈아 끼우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24시간에 비유한다면 100세 시대에 60세(퇴직나이)는 오후 2시 25분에 불과하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오후 2시경에 퇴근(은퇴)한다는 건 현실과 괴리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Re-tire’라는 해석처럼 타이어를 다시 갈아 끼우고 인생의 2막을 시원스럽게 달려보는 세대로 보는 것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요.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위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크게, ①건강, ②경제적 준비(자산관리), 그리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③활동(일, 취미, 봉사활동 등)과, 함께할 ④배우자·친구(대인관계) 정도로 봅니다. 여기서 은퇴 이후의 ‘활동’, 특히 ‘일’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목적 이외에 일하는 즐거움, 신체의 활력 유지, 사회적 유대관계 유지, 새로운 도전 등을 통해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을 것 같구요, 저는 경제적 준비 측면에서 참고하실 만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개인연금저축, IRP(퇴직연금), 중개형ISA(종합자산관리계좌) 등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식, 펀드, ETF(상장지수 펀드, 예:미국 S&P500ETF), 리츠(REITs)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 향후 연금수령시 과세 이연·저율 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2) 은퇴 이후에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자산관리보다는 배당 등을 활용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 ‘배당 성장주(예: 월배당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 등)’를 꾸준히 모아가는 것에 대해 공부해 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3) 개인의 위험 성향을 고려하되 위험 자산(주식 등) 외에 안전 자산(채권, 예금 등)을 반드시 함께 들고 가야 합니다. 금융시장 상황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락구간은 늘 있기 마련이며,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동안에는 인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투자는 ①장기보유(10년 이상)를 목표로 하며, ②보유 자산은 주기적으로 점검(리밸런싱) 하고, ③분할 매수·매도와 ④자산별 분산 투자를 원칙으로 삼도록 합니다.

(5) 아울러, 경제 흐름에 대한 이해와 끊임없는 배움을 통해 금융시장을 읽어가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신문을 구독하거나, 재테크 관련 서적을 읽고, 유튜브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은퇴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확실성의 시대에 교회야말로 ‘슬기로운 은퇴생활’을 위한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통해 영육간에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고, 교회 내 다양한 봉사 활동이나 공동체 활동 등을 통해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은퇴 이후의 삶을 알차고 보람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 동화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The ugly duckling)를 누구나 다 알 듯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또한 기독교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느날 갑자기 “미운 오리 새끼” 동화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공통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래서 각각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호진 장로
(강서구역)

1. 남을 못살게 구는 오리 새끼들과 남을 해치는 강도

1) 다른 아기 오리들은 못생긴 아기 오리에게 매우 심술궂게 굴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놀렸고 그들의 형제로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 아기 오리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물기까지 했습니다.

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2. 방관하며 날아가는 기러기들과 방관하며 지나가는 한 제사장과 한 레위인

1) 못생긴 아기 오리는 자기의 작은 날개를 가지고 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기러기들은 날아갔고 못생긴 아기 오리는 다시 혼자 되었습니다.

2)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 보살피는 사람과 보살피는 선한 사마리아인

1) 못생긴 아기 오리는 점점 추워지고 약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 남자가 못생긴 아기 오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따뜻한 난로 앞에 놓았습니다. 그들은 못생긴 아기 오리에게 음식을 주었고 그 오리는 그것을 모두 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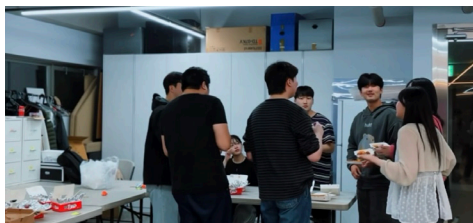
2)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런데 이 동화가 동물들이 소재이고 동물들을 의인화 했기에 계속 동물들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 즉 못생긴 아기 오리가 춥고 배고파서 죽어갈 운명에 처해 있을 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등장하는 캐릭터가 동물이 아니라 왜 사람일까 생각해보았고 역시 사람만이 희망이구나 하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계 도처에 전쟁과 자연재해로 사람이 죽어가고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상 유래 없는 대형 산불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어마어마하게 산림이 파괴되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고통과 고난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희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길 바라고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친교와 봉사과 교육과 기도의 봄날, 하이청년들

I 금요기도회와 애찬식



3월 28일, 4월 11일과 25일, 5월 9일, 가나리집 아가페홀에서는 금요기도회가 열렸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년들은 매 달 두 번, 정기적으로 모여 찬양과 말씀 그리고 기도로 밤을 밝히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삶을 드리고 기도의 불을 지폈다. 특별히 5월 9일 기도회 후에는 후원의 손길로 준비된 맛있는 야식을 나누며 서로 교제를 나누는 친교의 시간도 가졌다.

I 풋살 친교



3월 30일(주일/서소문교회 청년부), 4월 19일(토/교역자 및 청년부), 5월 3일(토/송학대교회 청년부)에는 풋살을 통해 교제하는 즐거운 시간이 마련되었다. 함께 땀 흘리며 뛰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웃음과 대화가 오갔고, 공동체 간의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다.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영육간의 건강을 도모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청년들은 경쟁보다는 배려와 협력을 배우며, 함께 자라가는 기쁨을 느꼈다.

I 러브릿지 온(溫) 도시락 봉사



3월 22일(토)과 4월 19일(토) 창신동 이웃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러브릿지 온(溫) 봉사가 진행되었다. 일교차가 큰 날씨 속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은 어떠하지 살피며 마음을 다해 안부를 묻고, 필요한 물품을 정성껏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단순한 나눔을 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의 삶에 귀 기울이며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순간순간은 청년들에게도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 작지만 진심이 담긴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을 골목골목에 퍼져나가는 귀한 시간이었다.

| 셀 리더 양육



3월 23일(주일)과 4월 13일(주일), 가나의집 아가페홀에서는 셀 리더들을 위한 양육의 시간이 열렸다. 김주용 위임목사님께서 리더들을 위해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리더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각자의 셀 공동체를 더욱 잘 섬기기 위한 마음과 방향을 새롭게 다졌다. 리더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며, 공동체를 이끌어갈 믿음의 기반을 든든히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 어버이날 행사

5월 11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비청년부가 앞장서 부모님과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청년들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기억하며 카네이션을 드리고,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며 마음을 나누었다. 언제나 청년부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신 손길들 덕분에 지금의 청년부가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다.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오신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교회 안에 가득했다. 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



| 스승의 날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청년부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늘 청년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시고, 복음을 삶으로 전하시며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두 분께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꽃다발과 작은 선물을 드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늘 곁에서 청년들을 위해 애쓰시고 인도해주시는 섬김에 깊은 감동과 존경을 느끼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귀한 스승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는 뜻깊은 날이었다.

HI청년공동체 교제의 중심, 각양각‘셀’



매주 주일 2시 30분경, 4부 예배가 끝나면 청년들은 교회 곳곳으로 삼삼오오 무리지어 이동합니다. 다들 무엇을 하러 가는 것일까요? 바로 ‘셀모임’입니다. 셀은 주일학교의 ‘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바뀌며, 셀리더를 중심으로 평균 10명 정도의 청년들이 모여 예배 후에 삶과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셀리더와 셀원들은 서로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주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이것이 재적인원 100명이 넘는 HI 청년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매년 셀의 수와 평균인원은 유동적이지만, 올해는 새가족팀, 셀지원팀 포함 14개의 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셀의 리더들은 셀원들을 전담마크하며 신앙생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셀모임을 이끌어나가고 공지사항을 전달하며, 교역자 및 임원진들과 셀원들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합니다. 셀원들이 예배에 잘 나올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신앙생활 및 삶에서의 어려움이나 고충을 파악하는 역할도 합니다. 따라서 셀리더들은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교육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어떻게 하면 셀원들의 신앙생활을 잘 도울 수 있을지, 셀원들을 청년부에 잘 적응시키고 맡은 셀을 올바른 신앙공동체로 꾸러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2025년 HI청년 공동체에 어떤 셀들이 있는지 어떻게 교제를 하고 있는지 리더들을 통해 소개하겠습니다. / 진행: 남다는 기자

♥ 각양각셀 12개 셀 한 줄 소개 (출처: 리더들)

하소연셀(박예림 리더, 박순찬 부리더): 빛과 소금

하두리셀(한지는 리더): 가지각색의 셀원들이 모여 주님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중!

제네시스셀(신현철 리더, 윤경희 부리더): 친해져서 좋습니다.

하소서셀(김상현 리더): 말씀을 사랑하는 셀

홀리몰리셀(공윤희 리더, 김한결 부리더): 진지함

프로미셀(박빛나 리더, 주성경 부리더): 친해지길 바래

형형색색셀(최형규 리더, 장하은 부리더): 다양한 매력을 가진 친구들이 많은 셀

여호와라파:돈독셀(이강욱 리더, 김지원 부리더): 주님 안에 돈독한 우리 셀

소확행셀(김동현B 리더, 이승민 부리더): 소망을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셀

홍삼캔디셀(홍혜림 리더, 김예랑 부리더): 다양한 매력과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이 하나되는 셀

다나와셀(남다는 리더, 김나연 부리더): 새내기 셀 제외 최연소 셀이지만 가장 바쁜 셀

스무셀(구자현&송하람 리더): 참 다채롭다

♥ 셀러더 익명 Talk

셀모임을 이끌어가며 기도로 섬기고 있는 리더들에게 셀모임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어보았습니다.
재있었던 내용만 취합해 익명으로 공개합니다!

Q. 우리 셀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 ㄴ, 밝고, 에너지 넘치는 귀가 즐거운 라디오 같은 매력(지방 라디오가 많음;;)
- ㄴ, 나이는 대학생 나이인데 정작 대학생은 몇 명 없습니다.
- 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셀의 매력이에요.

Q. 셀리더로서의 고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ㄴ, 바보 같은 나의 모습도 보여주어야만 하는... 숨길 수 없게 되는 위치...
- ㄴ, 맛있는 것도 더 많이 사주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지만 저의 재력이 부족합니다.
- ㄴ, 셀원 한 명 한 명에게 평일 심방 등 시간을 쓰기가 어려워져서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Q. 활발한 셀모임을 위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 ㄴ, 셀 아이들과 여름에 야유회를 가기 위해 준비 중이에요
- ㄴ, 말을 많이 합니다 like 디너쇼~
- ㄴ, 텐션을 위해 점심 챙겨먹고 나오기

Q. 셀모임 중 재밌었던 에피소드 풀어주세요)

- ㄴ, 예람 누총남이 저희 셀에 있는데 막내가 오자마자 빵 자르는 역할을 인수인계해줬습니다.
- ㄴ, 셀원들과 카페가는데 15분 걷는 동안 죽도록 힘들어서 웃겼습니다.
- ㄴ, 생일 케이크 준비했는데 생일 주인공 두 명 다 안 나옴

Q. 올해 셀모임하면서 꼭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 ㄴ, 빠지, 패러글라이딩, 글램핑, 스키장 등 액티비티
- ㄴ, 1박 2일 체육대회
- ㄴ, 송구영신예배 전에 한 해 회상토크하기

♡ 든든한 셀모임 서포터, 셀지원팀(김지윤 리더)

활발한 셀모임을 위해 각 셀의 리더들도 수고해주고 있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셀지원팀'도 존재합니다. 셀지원팀은 리더들과 셀들을 보다 세밀하게 돌보고자 존재하는 팀입니다. 리더들과 셀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며 예배 준비도 함께 돕고 있습니다. 셀모임을 위한 장소를 배정하고 매주 셀 출석부를 꼼꼼히 관리하며 청년들의 소중한 기도제목들을 빠짐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일 예배 전에 자리 안내표와 피켓을 배치해 셀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셀지원팀도 예배 후에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맡은 일들에 대해 피드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셀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없는지 함께 고민하며 회의합니다. 최근에는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해 성경통독표를 제작하고 익명 독방을 만들어 그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의 셀로서 각자의 일상과 기도제목, 설교와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따뜻하게 교제하고 있습니다.

♡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며, 셀원들을 위해 중보로 기도하는 리더가 되길
- 교회 되는 리더 될 수 있도록
- 바르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고, 셀원들을 돕는 지혜로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 하나님이 세워주신 역할 잘 해내고, 셀원들 모두 건강하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도록
- 셀원들 모두 하나님을 만나고 더 깊이 알게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 셀원 모두가 공동체의 힘과 동역의 기쁨을 할 수 있길, 셀이 H청년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힘쓰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길
- 하나님 안에 주어진 삶 잘 감당해내길
-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 셀원들 모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길
- 예수님 이야기로 하나되는 셀, 셀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셀리더 되길



◆슬기로운 교회생활-올바른 신앙용어◆

(제86, 87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결의)

부분	개정전용어	개정후 용어	참고
기도와 관련된 용어	당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3인칭이므로 쓸 수 없다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드립니다(기도합니다)	기도의 마무리는 과거가 아닌, 현재로 끝내는 것이 옳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존칭의 2인칭이 되기때문에 이미 사어가 된 '이여', '-이시여'를 붙여서는 안 되고 그저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로 해야 옳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지존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회중을 가리켜 '우리 성도님들이'란 존대를 해서는 안 된다.
	대표기도	기도 인도	기도 인도자는 기도 대표자가 아니다
예배 예식분야	사회자	인도자(예배시)	본 교단 1998년 총회에서 통과된 표준 예식서에는 모든 예배의 진행자는 인도자(司導者)로, 성례 전과 같은 예전의 경우는 집례자로 표기하였음을 밝힌다.
	성가대	찬양대	성가대는 일본의 세이카 다이(聖歌隊)가 그대로 직수입되어 불리는 것으로 성경에도 없는 말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시에는 사용 불가	
	대예배	주일예배	예배에 크고 작은 것이 있을수 없다
	열린 예배	열린 집회(불신자, 구도자 대상)	청년들의 예배라면 젊은이 예배/찬양예배로 쓸수 있다.
	예배 봐준다	사용불가	개업예배, 구역예배 등의 경우
	준비 찬송	사용불가	
	예배-예식-기도회	구별 사용	둘,추도,입학,결혼,임직, 교회창립 →예식 수요예배, 월야예배, 새벽예배 →기도회
	헌금	봉헌	봉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경성을 다하여 경청한 우리들이 스스로 우리나라의 응답으로 내어놓는 모든 마음과 경성의 표현이다.
장례 부흥 부분	소천(所天)하셨다	별세(別世)하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숨을 거두었다	소천은 우리말에 없는 신조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미망인(未亡人)	고인의 부인/고인의 유족	미망인은 순장제도에서 유래함
	칠성판(七星板)	고정판(固定板), 시정판(屍定板)	
	영결식, 고별식	장례예식	
	삼우제(三虞祭)	첫 성묘(省墓)	
	고퇴	의사봉, 사회봉	장로회 총회의 상징적 의사봉만을 고퇴라고 한다
교회 부흥 부분	전야제	전야 축하행사	예) 성탄절 전야 축하행사
	사모	사모님	목사나 목사부인들은 자신을 사모라고 할 수 없다.

심과 기쁨을 품은 열매, 사과



사과는 누구나 즐겨 먹는 대표적인 과일이다. 달콤하고 새콤하며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탄력이 있고, 단단한 과육을 가지고 있는 과일이다. 종마다 다르지만 보통 청량감이 있는 좋은 향기가 난다. 후각이 민감한 사람이라면 사과 수확철의 과수원에 갇힌 안개에서 사과향기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향기를 지닌 과일이다.

사과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이며, 개화기는 3-4월이다. 히브리 이름은 ‘타프야흐’, ‘답부야’라고 불리는데, 성경에서 사과를 말하는 곳은 여섯 군데이다. 성경의 사과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에덴동산 이야기다. 아담과 하와가 따 먹은 선악과, 금단의 열매가 사과일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그러나 선악과가 사과라는 근거는 없다. 선악과가 무슨 과일이었는지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대체로 무화과, 석류, 복숭아 등이 그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유럽에서는 신석기시대에 사과가 재배되었고, 이집트에서는 람세스 2세 당시의 파피루스 문서를 통해 사과와 석류, 올리브, 무화과가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아가서에서는 네 번씩이나 아름다운 사과를 노래하였는데, 풍성한 나무 그늘, 과실과 그리고 감미로운 향기가 언급되어 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수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아 2:3). 이 구절에서 사과나무는 연인(혹은 그리스도)을 상징한다. 그 그늘은 보호와 안식을, 입에 달콤한 열매는 사랑의 기쁨과 만족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



김한 목사

아가서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의 열정과 감정적인 친밀함을 사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연인 간의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서 누리는 만족감과 생명의 기쁨을 사과에 비유할 수 있겠다.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보호와 섬, 참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게 한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에 금 사과니라 (잠 25:11)”. 이 말씀에서 ‘사과’를 쓴 이유는 사과가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모양이 아름답고, 향이 좋으며, 먹을 때 기쁨을 주는 과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사과는 기쁨과 생명의 열매를 상징하는 과일로 자주 비유되었고, 여기에서도 사람의 말이 누군가에게 것처럼 기쁨과 유익을 주어야 함을 강조하는 데 딱 맞는 표현이 된 것이다.

이처럼 사과는 성경에서 단순한 달콤함을 넘어, 보호와 기쁨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등장한다. 지금 우리는 그 상징을 향기로도 경험할 수 있다. 사과 향기는 마음에 작은 섬과 기쁨을 주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안의 평안을 떠올리게 한다. 이제 그 의미를 담아, 사과의 향이 담겨있는 향수 몇 가지를 소개해보려 한다.

사과 향수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D**의 ‘비 딜리셔스’는 상큼한 그린 애플 향이 중심이 되어 활기찬 느낌을 주는 향수이다. 그린 애플과 오이, 자몽이 들어가 있어서 상쾌하면서도 데일리한 향수로도 적합하다.

퍼퓸 * **의 ‘그린리’도 신선함이 느껴지는 상쾌한 향수이다. 첫 향에서 사과와 베르가못, 오렌지가 주를 이루며 중성적인 느낌을 준다. 신선함이 느껴지며 상큼한 과일향이 잘 어우러진 향수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패션 브랜드인 자*에서도 좋은 향수가 많이 나온다. 자*의 ‘애플쥬스’는 플로럴 프루티 계열의 향으로 가벼운 향이다. 가끔 매장에 가면 이 향기가 뿌려져 있기도 하다. 사과와 자몽, 오렌지 가벼운 과일 향으로 시작하여 부드러운 플로럴 향으로 이어지는 누구나 좋아할 만한 사과 향수이다.

독특한 사과 향을 원한다면 에파 *** **의 ‘아이 엠 트래쉬’도 추천한다. 이름부터 독특한 향수인데, 폐기물에서 아름다움을 재발견하는 독특한 콘셉트의 향수이다. 이 향수는 기존에 사용된 원료를 재활용해서 새로운 향을 창조한 점에서 아주 유니크하다. 사과 에센스와 오렌지는 주스 산업에서 버려진 과일에서 추출했다. 상큼한 사과 향이 tap에서 느껴지며 활기찬 느낌이 느껴지는 향수이다.

사과는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성경 속에서는 사랑과 기쁨, 섬과 평안을 상징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 의미가 향기를 통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은 참 기쁜 일이다. 누군가에게 향수 한 방울이 마음을 다독이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바쁜 하루 속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는 작은 기도가 될 수 있다. 이 봄, 사과의 향기와 함께 우리 안에 머무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향기를 다시 깊이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한다.



‘즐테 교제’로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연동테니스선교회”



연동 소그룹 모임에서 만행을 찾는다면, 단연 테니스모임을 첫손가락으로 꼽아야겠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조용히, 그러나 열렬하고 격렬하게 이만큼 교제시간을 이어간 모임도 드물 거다. 그 동안의 시간만큼 회원들 면면도 다양해서, 지난 사진들을 통해 오랜만에 “어머, 이분은?” 반가움에 화들짝 놀랄 수도 있다.



1990년대 초반에 오세정 은퇴장로, 윤택식 공로안수집사 등을 중심으로 결성된 연동테니스선교회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롬8:37) 말씀에 따라, 즐거운 테니스를 통해 더 큰 사랑과 자유를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소그룹 모임이다.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최명식 집사는 "연동테니스선교회원들은 '즐테(즐거운 테니스) 교제'를 통해 그분과 함께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사는 법을 배우고" 있다며, "테니스를 치기 원하는 분이라면 누구든 언제나 환영"이라며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고 있다. / 박현미 편집장



- ▶ 현재 회원: 18명(매회 10명 내외 모임)/ 모임날짜: 매달 셋째주일/ 장소: 신일고등학교(강북구 미아동 소재) 테니스코트/ 활동: 테니스 및 식사와 함께하는 셀 모임(가끔 정모 외 번개 모임)
- ▶ 특전: 운동 외 오래된 연동교인들과의 생각지 못한 즐겁고 유익한 교제/ 운 좋으면 위임목사님이나 원로목사님과과의 테니스 겨루기
- ▶ 가입 문의: 최명식 집사, 이성은 목사 외 알고 있는 연동테니스선교회 회원들에게

광주의 오월, 민중의 아픔과 연대한 연동교회



1980년 5월, 광주는 민주주의를 향한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과 신군부의 잔혹한 폭력이 격렬하게 충돌한 비극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때 한국 교회는 외부와 단절되어 고립 속에 갇힌 광주의 고통 받는 민중과 연대했습니다. 기독교의 '예언자적 역할'은 불의와 압제에 맞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연동교회는 구한말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수많은 항일 독립운동을 배출하였고,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는 민주화, 인권, 노동 운동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며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고 민족의 아픔에 깊이 동참해 온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연동교회 역시 광주의 아픔 앞에서 예언자적 역할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 5월의 광주와 교회

12.12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신군부는 민주화의 열망을 짓밟고 5월 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특히 광주에는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자비한 폭력과 살상을 자행했습니다. 신군부의 철저한 언론 통제 속에서 광주는 외부와 고립되어 피로 물들어가는 아픔의 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광주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고난 받는 이들의 피난처이자 진실을 외치는 양심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직면했습니다. 광주양림교회를 비롯한 광주 지역 교회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시민들의 피난처가 되었고, 부상자를 치료하며 희생자 수습에 헌신했습니다. 전국의 교회 역시 광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신군부가 정권을 잡은 암흑한 시절이었음에도 5월 28일 예정 통합 총회는 사회부서 긴급구호 비축기금 300만원을 가지고 박치순 목사(총회 부회장) 등 여럿의 목사들과 함께 광주 현지로 내려갔습니다. 기독교광주사태구호위원회에 200만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광주기독병원(5.18민주화운동 당시 가장 많은 부상자를 치료한 병원)에 100만원을 전달하고, 광주양림교회 기도회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을 위해 기도하고 위로를 전했습니다.

연동교회의 역할과 연대

1980년 2월 한국교회협의회(KNCC) 부회장에 선출된 연동교회 김형태 목사(당시 총회 서기)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WCC) 주최 선교대회에 한국대표로 참석 중이었다가 광주 소식을 접하고 급히 귀국해 사태 파악과 연대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당시 연동교회 옆 기독교방송국 앞에는 탱크 두 대가 주둔하고 있었을 만큼 철저한 언론통제와 사실왜곡으로 광주의 진상이 유언비어로 차단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5월 30일 연동교회에서는 총회 임원들의 광주 방문과 관련하여 일련의 사태와 총회 활동에 대한 보고회와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보고회에서 광주의 참상이 처음으로 서울지역에 전해지며 기도회와 모금이 전국 교회들로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연동교회가 교회들에게 광주의 참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함께 기도하며 연대 의식을 고취하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것입니다.



1980년 6월 7일 한국기독교공보 1면

연동교회에서 열린 보고회와 기도회를 통해 광주의 참상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서울연합회와 전국연합회 소속 남선 교회에서도 광주를 위한 모금과 기도회를 결의했습니다. 연동교회 또한 광주를 위한 모금 운동에 솔선, 동참했습니다. 1980년 당시 연동교회 당회 기록을 살펴보면, 6월 당회록에 “광주사태를 돕는 기도와 헌금을 교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헌금하도록 하다”, 7월 당회록에 예산재정위원회 회계보고 내용 중 “광주 시민 도움에 50만원을 보냈음”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까지 약 1달 동안 총회 사회부에서 접수한 광주시민돕기 봉헌금은 연동교회를 포함, 전국 190개 교회에서 총 2천 185만 7,169원이 모금되었고, 전액 광주 구호기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다시 직면한 예언자 역할

올해 45주년을 맞는 5.18민주화운동 때 많은 교회들이 예언자적 역할과 연대 정신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연동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불의에 맞서 진실을 외치고 연대함으로써 교회의 사회적 책임과 예언자적 소명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 교회는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사회 문제와 심화하는 빈부, 좌우 갈등에 직면해서 예언자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동교회는 시대의 예언자로서 한국교회에 하나의 기준점이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물 같이,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도록 할 책무를 계속해야 합니다.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 박현미 편집장

남미 페루에서 불어오는 선교 소식

페루(Peru)는 남아메리카 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 기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사역하는 안길태·박지원 선교사님 소식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언제나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페루에서 문안드립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요일 1:2).

1. 영국 노회와의 협력 선교 확장 논의

현지 교회 협력 ▶ 루스 데 아모르 교회(사랑의 빛 교회): 주일학교

루스 데 아모르 교회에서는 지난 1월과 2월, 방학 동안 아이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요리, 만들기, 종이접기, 찬양 율동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며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종이접기를 좋아하던 세인이는 이번 종이접기반에서 직접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며 더욱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2. Selah(셀라-복음 콘텐츠 제작/보급) ▶ Selah팀 이야기: 2년 차 첫 번째 책, "4일간의 이야기" 인쇄

이 책은 사영리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기도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책바자회를 기획하고 주관 해주신 아름꿈방(도서관) 권사님과 연동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책을 인쇄할 수 있도록 인도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 기도부탁드립니다.

1. 저희 가정이 언제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안길태, 박지원 선교사가 영육 간에 강건하며, 늘 깨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교재 제작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문제와 활동들을 창의적으로 구성하여, 아이들이 더욱 즐겁고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3. 셀라 성경교재를 통해 전해지는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고,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각 아이들의 마음에 심겨 건강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저희 사역과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정리: 박동진 기자

자세한 선교 소식은 esta bien aqui!! ▶ https://blog.naver.com/mfperu_2013



MISSION
FOR PERU

서울 시티투어와 부활절을 통한 중국유학생들의 선교와 복음



중국어예배반은 3월 22일(토), 새로 온 유학생들과 우정을 나누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는 서울 시티투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유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교회공동체를 경험하고, 장기적인 우정과 선교적 기회를 열기 위한 목적이었다. 행사에는 기존 유학생 10명과 새로 온 유학생 5명이 참여했으며, 과정 중 미숙한 부분도 있었지만, 따뜻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새로 온 유학생들에게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고, 기존 유학생들에게는 섬김과 리더십을 실천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는 다문화선교팀(팀장 허선미 권사)의 후원과 성도님들의 사랑 덕분에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었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유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복음의 연결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4월 20일(주일)에는 중국유학생들을 초청해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이번 예배는 부활의 기쁨을 나누고 복음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예배 후에는 부활절의 의미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학생들은 각자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이해를 담아 다양한 이미지들을 그렸고, 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가 마음에 새겨졌다.

특히 한 유학생이 예수님의 무덤과 부활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그 의미를 나누며, 부활의 소망이 국경과 언어를 넘어 모든 이들에게 필요한 복음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다. 따뜻한 식사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가지고, 앞으로 이들이 복음 안에서 계속 자라가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WeChat ID : df7135
중국어예배반 박경분 목사



지역을 넘어, 세상을 잇는 복음의 WIN-Seoul 제자훈련 여정

WIN-Seoul 교회는 제자훈련을 교회의 선택이 아닌 본질적인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처럼, 교회 역시 제자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WIN-Seoul 교회는 2014년부터 체계적인 제자훈련 프로그램인 WDP(WIN Discipleship Program)를 운영해왔습니다.

WDP는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된 모듈형 훈련 과정으로, 신앙의 여정을 따라 점진적

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Connect'는 새신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I Belong' 단계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바탕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신앙 성장을 도모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Purpose Driven Life(목적이 이끄는 삶)' 과정을 대체로 사용하여 일상 속에서의 경건 생활과 영적 습관을 훈련하도록 도와줍니다. 이어지는 'I Serve'에서는 각자의 은사를 발견하고 실제로 섬김을 실천하는 과정을 통해 교회와 공동체에 헌신하게 하며, 마지막 단계인 'I Lead'에서는 리더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훈련합니다.

2025년 3월에 시작된 최근 제자훈련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며, 교인 중 약 85%가 참여할 정도로 매우 높은 헌신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참가자들은 단순한 신앙 훈련을 넘어, 필리핀 지역인 퀘이존, 바기오, 유니온, 비콜(Infanta Quezon, Baguio City, La Union and Naga Bicol)의 현지 교회들과도 연결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훈련의 열매가 해외 선교적 연대까지 확장된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 나타난 가장 큰 열매는 삶의 실제적인 변화와 가정의 복음화입니다. WIN-Seoul 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마태복음 28장 19~20절)에 순종하는 제자 세움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이 사명을 이어가며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헌신할 것 이기에 함께 기도부탁드립니다.

/ 글: Abel Raby 목사, 정리: 박동진 기자



Facebook : Abel Raby
Filipino, Pastor Abel



< 영아부 > 부장 : 이현승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마9:29)	<사순절 2> 말씀집중주일
	23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고쳐주셨어요(마5:34)	<사순절3> 말씀놀이: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30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눅 15:24)	<사순절4> 말씀놀이: 돌아온 탕자를 찾아요(숨바꼭질 놀이)
4	6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막8:31)	<사순절5, 성례주일> 4월 생일 축하(김이안, 김준원, 장은유), 4월 말씀송 배우기, 새친구 환영(정윤성)
	13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요12:13)	<종려주일> 성찬식, 말씀놀이: 호산나! 예수님 환영해요
	20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요20:18)	<부활주일> 새친구 환영(이윤슬), 말씀놀이: 예수님 꽃이 피었습니다&에그헌팅, 교사월례회&기도회
	27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깨닫게 해주셨어요(눅24:26)	말씀집중주일
5	4	온세대에배(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마당잔치

/ 박윤신 부감



4월 생일을 맞은 친구들을 축하합니다(장은유)



첫 출석한 친구를 환영합니다.(정윤성, 이윤슬)



호산나! 예수님 환영해요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다함께 분당에서 예배드려요



부활주일 말씀 놀이

< 유아부 > 부장 : 정윤정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쳐 주셨어요(마9:29)	마라카스 만들기
	23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구원해 주셨어요(막5:34)	대근육활동/색판 뒤집기
	30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누15:24)	반별 말씀암송
4	6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세요(막8:31)	4월 생일파티
	13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요12:13)	예수님을 맞이해요.
	20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요20:18)	부활주일 달걀 꾸미기
	27	예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누24:26)	반별 말씀암송
5	4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 정윤정 부장



반별 말씀암송



부활주일 연극



생일잔치 축하해요



달걀 꾸미기



예수님을 맞이해요



부모님과 단체사진

<유치부> 부장 : 유진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예수님이 앞이 보이지 않는 두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마 9: 29)	재미있는 공과
	23	예수님이 몸이 아픈 여자를 구원해주셨어요(막5:34)	재미있는 공과
	30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누15:24)	말씀 암송잔치
4	6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막 8: 31)	4월 생일 잔치
	13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요 12:13)	반별 공과
	20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요 20:18)	부활주일 예그현팅
	27	예수님이 깨달게 하셨어요(누 24: 26)	말씀 암송잔치
5	4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 최정미 교사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린 예배 너무 기뻐어요

예수님 오늘 예배도 함께해주세요



재미있는 공과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자라는 우리들!!



< 유년부 > 부장 : 최경희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눈 먼 자를 고치신 예수님(마 9:26)	사순절 2, 반별 공과활동
	23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 예수님(막 5:34)	사순절 3, 반별 공과활동
	30	은혜를 전파하신 예수님(눅 15:24)	사순절 4, 상반기 성경퀴즈대회
4	6	수난을 예고하신 예수님(막 8:31)	사순절 5, 반별 나눔, 4월 생일파티
	13	임성하신 예수님(요 12:13)	종려주일, 반별 공과활동
	20	부활하신 예수님(요 20:18)	부활절 특별 예배 (연극)
	27	깨닫게 하신 예수님(눅 24:26)	반별 공과활동, 반별 나들이
5	4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시 78:7-8)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

/ 성창원 교사



4월 생일잔치



성경퀴즈대회



즐거운 찬양활동



부활절 연극

〈 초등부 〉 부장 : 장미연 권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사건일지〉 예수, 그는 누구인가?(마9:29)	공과활동
	23	〈실시간 스트리밍 중〉 혈루증 여인의 증언 (막5:34)	공과활동
	30	집중탐구! 집 나간 둘째 아들 눅15:24)	공과활동
4	6	대개봉! 예수 그리스도(막8:31)	3-4월 생일잔치
	13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요12:13)	종려주일 공과활동
	20	특종! 부활의 소식을 알려라!(요20:18)	부활절 영화상영 '패션오브크라이스트 브릭 부비'
	27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다(눅24:26)	초등부 봄나들이 난지천공원
5	4	start! 하나님의 구원약속(with 모세)(출3:10)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 김태정 부감



즐거은 공과 활동



3-4월 생일 축하 잔치



4월 모범반 간식 시간



부활절 함께 보는 영화 상영



함께 뛰노는 즐거운 봄나들이



온세대에배 맛있는 핫도그 나누기

< 어린이부 > 부장 : 윤중훈 안수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AWANA 4주차 “복음의 선교사”(행 13:49)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23	AWANA 5주차 “하나님께 영광”(행 14:18)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30	AWANA 6주차 “하나님께 영광”(행 14:18)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4	6	AWANA 7주차 “나의 도구”(행 9:15)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AWANA 올림픽(5/17) 외부 설명회 참석
	13	AWANA 8주차 “나의 도구”(행 9:15)	G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AWANA 올림픽 인원 모집
	20	AWANA 9주차 “나의 도구”(행 9:15)	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AWANA 올림픽 대비 훈련
	27	AWANA 10주차 “나의 도구”(행 9:15)	ame / 소그룹 (성경암송) / 대그룹 (예배/시상) AWANA 올림픽 대비 훈련
5	4	“나의 도구” (행 9:15)	

/ 윤중훈 부장



어와나 소그룹활동 성경암송



어와나 게임



전도사님의 말씀 시간



어와나 오늘의 MVP 시상



어와나 소그룹 성경암송

< 중등부 > 부장 : 정선아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보여? 완전히 달라진 나(마 9:27-31)	학부모 초청예배-학생들 조별 연극, 사진 촬영, 학부모 간담회
	23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여정(사 43:18-19)	학부모 초청예배-학생들 조별 연극, 사진 촬영, 학부모 간담회
	30	하나님께로 귀환(눅 15:11-24)	사순절 성경 읽기/눅음, 세례입교 교육 2주차, 박찬빈 학생 송별회
4	6	너나누(막 8:27-34)	4월 생일자 생일축하 어린이부(어와나) 스텝교사 신청자 모집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율동팀 모집
	13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요 12:12-16)	성찬식, 입교자 축하 -김민건, 고서울, 김유나, 전하은 연말 더불어 프로젝트 역할 나누기
	20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요 12:12-16)	부활절 영상 시청(The Passion: A Brickfilm) 부활절 달걀 나눔
	27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 (요 20:24-29)	사순절 성경읽기를 잘 마치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피자 파티 새 친구 축하: 김리건, 김주하
5	4	주/유/소로 감시다 (주요소: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시 78:7-8)	어린이주일 온세대에배 마당잔치 맛있는 간식 나눔-중등부 아이스크림

/ 박성윤 교사



1학년 Bible Next Door 반 Outing



학부모 초청예배



학부모 초청예배



성찬식



봉헌



박찬빈 학생 송별회

< 고등부 > 부장 : 유성욱 집사

월	일	예배(공과)	활동
3	16	보이는 것 너머(마9:27~31)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5~10일차)
	23	Just One Touch(막5:25~34)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11~16일차)
	30	청소년 바로 지금(살전4:1~8)	청바지예배: 청소년기 신앙 및 가치관 고민 해결 (토론예배)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17~22일차)
4	6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막8:27~34)	4월 생일자 축하, 새친구 환영 (현재원)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23~28일차)
	13	호산나!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요12:12~16)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29~34일차)
	20	네 가지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과 인격적 만남 (요20:11~18, 24~29/요21:1~19/눅24:13~35)	사색思索:사순절의 40가지 색 (35~40일차) 사순절 묵상 완주 시상 (고서현, 박수연, 윤재운 김태원), 새친구 환영 (정승훈, 한순창, 김서형)
	27	의심에서 고백으로(요 20:24-29)	기독교 가치관 교육 (성경적 성교육 vs 세상적 성교육)
5	4	주유소로 갑시다(시78:7~8)	온세대예배, 마당잔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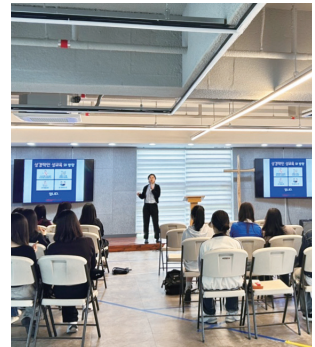
/ 이승원 부감



사순절 성경묵상 시상



새 친구 환영



기독교가치관 교육



온세대예배



청바지예배(토론예배)

‘어린이’와 ‘책’을 위한 “책바자회”와 그후

아름꿈방 도서관(관장 강희숙 권사)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책 바자회+기부’ 행사를 3월 9일(주일)과 3월 23일(주일)에 열었다. 두 번째 바자회는 교우 및 교회 주변에 사는 이웃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그리고 특별 봉헌이 모아져서 수익금이 130만 원으로 더 풍성한 ‘책잔치’가 되었다. 작년에 강희숙 권사, 김선휘 권사(전 아름꿈방 도서관장), 양진실 집사(어린이전도단장) 및 미래세대부에서 함께 기도하며 수익금 100만 원을 기부할 곳을 찾을 때, 청소년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책’을 기증하고 구입하는 바자회의 행사



‘4일 동안의 이야기’ 공과교재로 공부하는 아이들

목적에 적합한 곳이면 좋겠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마침 페루의 안길태·박지원 선교사님이 주일학교 공과교재를 제작하는 중이라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수익금을 기부하게 되었고, 교우들께서 “책바자회+기부”에 대한 내용을 “연못골” 소식지를 통해 알게 되면서 이번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작년 수익금은 페루의 주일학교 공과교재 2년차 첫 번째 책인 ‘4일 동안의 이야기’의 약 절반 정도의 제작비에 해당돼 아쉬운 마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풍성한 수익금을 허락해주셔서 한 번 더 공과교재 제작비로 보내기로 결정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청소년주일학교 어린이들이 2년차 첫 번째 책의 제작비 230만 원 전액을 봉헌하게 되었다. 수익금은 미리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페루에 또 한 번 기부를 하겠다는 연락을 하지 못하고, 알맞게 공과교재 비용을 예비해주시는 하나님께서 페루와 한국의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었다. 아름꿈방에서는 안길태 선교사에게 “책바자회”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작년에 부족했던 제작비를 올해 보내면서, 앞으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공과교재의 제작비가 계속 채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로 했다. 어린이전도단은 아름꿈방 “책바자회”를 통해 국외 선교와 국내 전도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며, ‘어린이’를 위해 또 ‘책’의 선순환을 위해 하반기에 전도와 바자회를 함께할 예정이다. 교회 주변 지역으로 전도를 나가서 연동교회와 행사를 알리고 이웃들이 교회에 방문할 수 있도록 “책바자회”를 토요일과 주일에 여는 “우리동네 책잔치”로 계획하고 있다. / 양진실 기자

토요악기교실 떡볶이 파티

‘연동토요악기교실’이 작년 12월 21일(토)에 시작되어 벌써 4개월 넘게 매주 토요일 오전에 진행되고 있다. 참여인원은 5월 현재 클래식 악기(바이올린, 플루트)에 11명, 일렉기타에 8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회 본당과 가나의집 조이홀에서 4명의 레슨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다. 5월 10일(토)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기념하여 학생 및 선생님, 학부모를 위해 ‘떡볶이 파티2+만두튀김’도 진행했다. 특별히 이화동 등에 사는 수강생의 어머니들과 이웃분들이 찾아와 간식을 만들고 함께 먹으면서 자리를 빛내 주셨고, 오한빛 목사님이 교회 이웃 아이들과 인사도 나눴다. 이날 오신 어머니들은 2월 8일(토)에 있었던 ‘떡볶이 파티1+주먹밥’에도 참석해서 함께 간식을 만들며 연동교회와 친숙해진 분들이다. 어린이전도단은 ‘연동토요악기교실’을 통해 이웃을 전도하고 연동교회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교인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양진실 집사(어린이전도 단장)

서울노회 어린이 교육대회



서울노회 아동부가 주최하는 제64회 ‘어린이 교육대회’가 5월 10일(토) 자양교회(광진구 소재)에서 열렸다. 개회예배는 박세현 집사(연합회 회장)의 인도로 시작되어 문현선 집사(직전 회장)의 기도, 김기환 목사(미래세대부장)의 “하나님을 위하라!”(삿 7:15-18) 말씀과 축도로 마쳤다. 이날 대회는 8종목이 오전에 치러졌고, 오후에 찬양울동 종목만 참가자 모두가 참관하는 가운데 자양교회 본당에서 있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고사 5명, 영어성경암송 1명, 찬양울동 12명 등 모두 18명이 참가하였고 올해도 전원 수상을 하였다. 금상과 은상을 수상한 14명은 7월 5일(토) 정릉교회(성북구 소재)에서 열리는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에 서울노회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참가한 18명의 학생들은 한 달 전부터 교회와 가정에서 대회를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다. 수고한 학생들과 학부모, 지도하신 전도사, 교사들에게는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서울시어린이종합대회’와 ‘전국어린이대회’에도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바란다. 참가자 명단 및 수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진실 기자

종목	학년	이름	수상
성경고사	2학년	박호준	은상
	3학년	황윤하	동상
	4학년	김하슬	은상
	5학년	박윤아	동상
	6학년	김성준	동상
영어성경 암송	5학년	우지원	동상
찬양울동	1학년	김은우, 김유하, 이지현, 장하영	금상
	3학년	기하윤, 이다희	금상
	4학년	김소연, 이지윤	금상
	5학년	박소은, 하도희	금상
	6학년	김유진, 정하울	금상



“맨해튼 타임스퀘어의 화려한 광고판 거리를 LTE급으로 스캔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 **박민선 집사**와 **왓두유쁘리빙** 가시죠~”



피아노 연주는 언제부터 시작하셨고, 어떤 계기로 관심을 두고 재즈 연주를 하게 되셨나요?

연못골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6~7살 때부터 클래식 피아노를 시작했어요.

중고등학교 때 교회 반주를 하면서 코드 반주를 잘하고 싶은 마음에 실용음악에 관심을 두게 되었어요.

그러다 대학 때 클래식피아노와 실용음악을 복수로 전공하면서 좀더 전문적으로 접근했고

진짜 ‘재즈’를 공부한 것은 유학 때부터였어요.

재즈곡을 연주할 때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나 스타일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특별히 좋아하는 곡이라기보다는 제가 만든 곡이나 편곡한 것을 제일 좋아해요.

재즈 스타일은 사실, 재즈 안에서 음악적으로 훌륭하다면 스타일은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답을 한다면 ‘모던재즈’ 하겠습니다^^



piano : 박민선

맨해튼 음대 재즈피아노 석사
버클리 음대 피아노 퍼포먼스음악 학사
재즈 피아니스트 박민선 "In That Moment"
앨범 발매기념 콘서트
(2013년, 예술의 전당 자유소극장)



P 박민선

B 김대웅

D 임홍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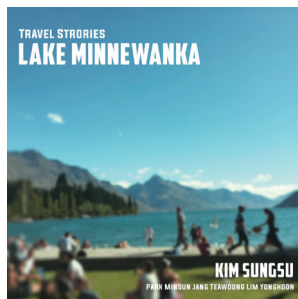
찬양 연주와 재즈 피아노 연주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끼나요?

찬양과 재즈의 차이라 하면, 메시지가 있고 없고의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재즈를 배운 후 여러 가지 장르로 찬양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적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연주자로서의 차이라면, 한국교회의 찬양이 너무 유행처럼 한 방향으로 획일화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도 ‘모던워십’의 형식 외에도 다양한 방식과 스타일로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작곡자이자 기타리스트 김성수님의 정규앨범에 키보드로 참여하셨는데, 재즈를 기본으로 락과 펑크가 믹스된 자작곡으로 알고 있어요. 앨범과 멤버분들에 관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기타에 김성수, 피아노에 박민선, 베이스에 장태웅, 드럼에 임용훈이 참여했고요. 작곡자인 김성수님의 자작곡으로 채워져 있는 음반입니다.

캐나다의 Minnewanka라는 호수 한가운데에서 느꼈던 고요하고 적막한 감정을 곡으로 쓰셔서 그 곡이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적인 앨범, 많이 들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연주 외에 즐겨하는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와우! 너무 꿈 같은 질문이네요. 체력이 부족해서 틈만 나면 최대한 쉬려고 하고 있어요.

저의 2집! 민요를 편곡한 정규앨범과 찬송가 피아노 솔로 앨범을 기획하고 있는데 올해에 완성하고 발매하는 것이 지금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인간 박민선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로 하면?^^

박민선은 호들갑과 돌레박이다.



*돌레박 : 주변의 광고와 간판을 돌레돌레
광속으로 스캔하는 박 씨(氏)라는 뜻



돌레박 민선 집사(쌍성연동 9구역)와 함께한 재즈 “와두유프리빙”이었습니다. 다음 “연못골”에서 만나요. / 박동진 기자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청년부에서
새내기 셀 리더와 미디어팀을 섬기고
있는 구자현입니다. 현재 회화작가로
평면 회화작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회화작가 구자현

| 나의 직업 소명 도전기

그림을 그리며 대상에 대해 모르는 면을 발견하게 되는 것, 무언가를 자세히 관찰해서 나의 시선을 그림에 담아내는 과정, 또 혼자서 몰입하는 시간이 즐거워서 그림을 계속 그려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작품에 잘 담아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현재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양화 재료인 한지와 전통안료, 서양화 재료인 아크릴이나 과슈를 섞어 사용해 빛의 불규칙한 형상을 그려냅니다. 내면의 여러 감정들이 충돌하며 빛을 만들어내고, 그 빛이 만들어내는 소용돌이를 상상해 작업을 진행합니다. 작업한 그림들로 갤러리 전시에 참여하거나 아트페어에 출품해서 작품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작업하는 과정 자체는 대부분 혼자 이루어집니다. 배움이 필요한 영역 또한 스스로 판단해서 주도적으로 공부해야 하고, 작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정해진 길이 없는 분야이기에 막막함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 더 의지할 부분이 많아져 주님과 가깝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가치관이 혼재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를 알고, 세상에 좋은 영향과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림을 그려가고 싶습니다.

| 후배들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빠르게 결실을 맺기 어렵고,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기에, 지속적으로 작업을 이어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많이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의 애정이 없이 할 수 없고, 작업을 위해 생계를 위한 일을 부수적으로 해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 눈에 띄는 결실이 있는 단계가 아닌 과정 가운데 있기에 어떤 조언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 보기에 안정적인 길이 안정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고, 힘들어 보이는 길이 꼭 고통만 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면을 알고 계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답이 정해져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혜를 가지신 주님의 뜻을 더욱 구하고 기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날들을 경험하길 기도합니다.

|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미술관련학과 진학이나, 회화작가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 010-3889-4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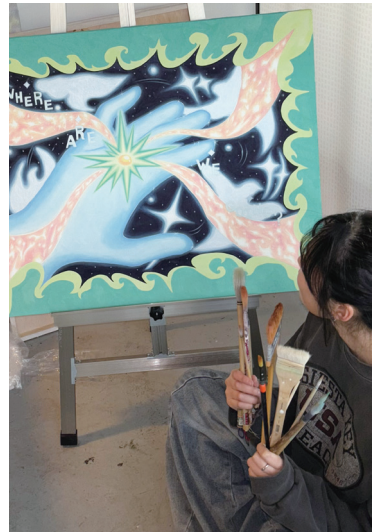
활동하는 sns, 홈페이지 등, 연락처 주시면 되세요.

/ 기획과 진행: 송재호 기자



*포트폴리오 및 인스타그램 계정
@flameblazeflare

<https://www.instagram.com/flameblazeflare>



“교회 생활이 즐겁고 감사하며 희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선희 성도(길음 구역)

2024년 3월 17일에 등록하신 정선희 성도(50세)를 교인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Q.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 하며 마치는 어느 노랫말처럼 이제는 제가 ‘다른 사람 몰라도 주님 없인 난 못 살아요’라고 읊조리듯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는 초신자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까지도 낯설고 어색함이 있기는 하나 하나하나 배워가고 알아가는 중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연동교회에 나오게 된 계기를 알려주세요.

2024년 2월 어느 날 꿈을 꿔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편안하게 눈을 감고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날이었습니니다. 그런데 잠깐 사이에 더 온화하고 평온한 빛이 들어오고 바람도 함께 솔솔 불어왔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아서 눈을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었는데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하늘 문이 열려 있는 듯한 것을 보고 너무나도 놀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이시다’ 하며 폭삭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꿈에서 깨어났는데 순간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조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고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교회를 찾고 싶다는 생각에 그때 드렸던 곳에서는 두 번 더 나갔었고, 이어서 다음 주일날 무작정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에 내려서 교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는 곳, 열려 있는 곳이 나의 교회다라는 확신을 가졌기에 위풍당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걸어걸어도 교회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나머지 포기하며 걷고 있었는데 기독교회관이 멀리서 보였습니다. ‘분명 기독교회관 주변에 교회가 있겠구나’ 싶어 빠른 걸음으로 가까이 가보았고, 예배당 문이 열려 있는 교회를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연동교회’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연동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Q. 연동교회에 적응하기까지 에피소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교회 생활이 처음인지라 모든 것이 어색하고 낯설었는데 이미열 구역장님께서 이것저것 경험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이끌고 챙겨 주셨습니다. 주방 봉사, 부담이 적은 분량의 성경 필사, 숲속야기학교 교사(7기), 우리 구역에서의 소식 등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교회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저에게 수준에 맞게 밀어붙여 주신 방법이 교회에 적응하는데 안성맞춤이었던 것 같습니다.

Q. 새신자 입장에서 연동교회 목회자나 교인들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교회생활이 즐겁고 감사하고 희망적이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곳이기를 소망합니다. 켜 예수님을 만나서 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예수님의 향기가 필요한 곳이라면 언제든지 피어날 수 있는 교인들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Q.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 없이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람 간의 관계와 교제에 대한 많은 가르침이 성경에 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놀라웠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간의 사랑과 협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바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평생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Q. 연동교인들과 나누고픈 기도 제목을 알고 싶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자, 기도 할 수 있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길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해야하는지 알게 하시고, 기도가 변화 된 삶으로 이어져서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기도모임을 통해 성경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배운 지혜로 삶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녹내장으로 시력이 많이 좋지 않으신 어머니의 눈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Q. 현재 하시는 일과 미래 계획 또는 교회에 관심 분야를 나눠주세요.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유아 교사로 일하면서 정말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고 교육하는데 있어서 현장에서의 교육보다 가정교육이 우선임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 위에서 세우는 가정교육은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길을 인도해주시고 지체를 성숙하게 성장시켜 주시기에 합당하므로 가정교육 사역에 미션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이 위태롭거나 가정이 해체된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기도 중에 있습니다.

Q.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새신자 또는 초신자들이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길가에 세워져 있는 '성경공부 무료' 포스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성경공부에 특히 목마른 초신자인 저에게는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회분들을 통해서 그 포스터가 너무나도 잘못된 방법으로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단임을 알게 되어 관심조차 두지 않게 되었습니다. 초신자들을 위한 성경공부 또는 다른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 진행: 진상협 기자, 사진: 김세현 집사

“이건희 목사님, 반갑습니다!”



4월 20일 부활주일 예배에서 연동 교인들과 첫 인사를 나눈 뒤 성금 성금한 걸음과 자상한 웃음으로 연동교회 이곳저곳에서 친화력을 발휘하고 계신 이건희 목사님을 ‘연못골’에서 만나보았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연동교회에 오신 소감, 부탁드립니다.

부임 후 가장 첫 번째로 연동교회는 ‘과연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는 교회구나!’라고 느꼈고 더하여, 131년 역사와 전통 그리고 새 바람의 물결이 잘 어우러져 현재를 보내며 미래를 착실히 준비하는 교회’라고 느꼈습니다. 이 조화로움이 오늘날의 연동교회를 있게 한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 헌신된 성도님들이 많으시다는 것, 예전 교회에서 저는 계획에서 실행, 돌봄까지 도맡아야 했는데 연동에 오니 성도님들께서 능동적으로 다가와 주셔서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장신대 신대원에서 만난 사모 이꽃아름과 4살 첫째 윤빛과, 1살 둘째 윤슬, 두 딸이 있습니다. 경영학과 출신으로 저처럼 직장생활을 먼저 경험하고 신학을 전공한 사모는 앞으로 목회상담학 석사과정을 공부할 예정입니다. 둘째 윤슬은 감사하게도 지난 어린이주일 때 김주용 위임목사님께 유아세례를 받았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신 동기를 알려주세요.

한양대학교에서 광고홍보학을 전공(문화콘텐츠학 부전공)하고 ROTC46기로 철원 6보병사단에서 군생활 후 여학연수 차 캐나다 토론토로 갑니다. 그곳에서 처음 목회자의 삶에 대해 고민하였고 토론토대학교 녹스칼리지의 신대원 과정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환(간암) 소식으로 한국에 돌아와 장남의 책임감으로 직장생활을 시작했습니다. 4년간의 직장생활 도중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친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고 예배 때 기도만 하면 “저를 보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울다가 다시금 주의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길로 직장생활을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넘어가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CSCU기독교대학(시소폰 지역)에서 예배 드리며 영어수업과 마약수용소 사역(수용인들

대상 영어교육, 성경공부, 예배)을 하다 9개월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에 입학했습니다. 개척 교회 사역 이후 과천교회에서 전임교역자로 목사 안수를 받았고, 70세 이상 된 교인들로 구성된 은빛구역을 맡아 사역하다 연동교회로 부임하였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이것이 목사님의 목회와 목회철학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생활, 군생활, 캐나다와 캄보디아로의 부르심, 개척교회 목회 등 그 모든 것이 제 성격에 맞게 저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주셨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성격상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먼저 하게 해주셔서 오히려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배웠던 학부 전공과 사회경험이 사역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좁은 시선으로 세계선교만을 바라보았던 저에게 하나님 나라 선교의 다양성에 눈을 돌 수 있게 해주어 참 감사합니다.

제 목회철학은 '하나님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사역자가 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장점인 에너지와 친밀감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을 다니면서 인종에 상관 없이 누구와도 잘 지냈고, 사모와도 신대원에서 선교라는 사역의 방향성이 일치하여 연애를 시작해 가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교사나 선교를 지향하는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기억해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또 다르게 관심 갖는 분야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활동적으로 에너지를 쏟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을 즐겨 하며 무엇보다 운동을 좋아해서 구기 종목은 어느 정도 물을 이해하고 물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 복싱(아마추어 생활체육인대회 우승)과 주짓수도 즐겨했습니다.

현재 연동교회에서 맡으신 사역에 대해 알려주세요.

1교구와 사회봉사부, 국내선교부, 다문화선교팀, 전도활동, 직장인선교팀을 맡고 있습니다. 특별히 6월 8일 주일에 교회 마당에서 다문화의 날 행사를 여는데 성도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동교회와 교인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잘하는 것이 많지 않은 대신 무엇이든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연동교회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종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연동교회라는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위임목사님과 교역자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선교의 일원으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뷰와 정리: 박현미 편집장

상담? 바우처를 활용하세요!

서대문구에 사는 김모씨는 가족치료를 통해 남편과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서대문구에서 제공하는 바우처를 이용해 전문상담기관에서 10회 무료상담을 받은 결과입니다. 자녀양육 문제, 부부갈등, 사람들과의 관계문제 등등 살아가면서 많은 갈등과 고민으로 마음이 힘들 때 상담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방법과 절차, 비용 등 너무 막연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동상담팀에서는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필요할 때에 잘 활용하여 우리 삶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주요 바우처와 활용방법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혜석 권사(상담팀장)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대상: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 증상이 확인된 자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내용: 1:1 대면심리상담 총 8회

지원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39만원에서 최대 64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 노인 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

내용: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말벗 서비스, 심리상담 및 우울감 해소 프로그램.

생활지원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하여 진행

지원금액: 무료. 대상자의 필요에 따라 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제공

신청 방법: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본인이나 가족, 이웃 등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음)

3.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대상: 만19세~34세 청년. 소득기준 없음

내용: 심리검사 1회, 전문심리상담(1:1 원칙, 50분, 8회), 종결상담1회

지원금액: 60만원~70만원(본인 부담금 10%)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4.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대상: 만18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

의사 진단서나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추천서 필요

지원내용: 심리상담, 놀이, 언어, 인지, 미술, 감각통합 치료

월 4회, 1회당 50분, 최대 12개월

지원금액: 월 18만원 (본인 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신청방법: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바우처가 지자체마다 개설되어 있습니다.

여성		
여성긴급전화	직장 내 성희롱, 부부갈등 등의 고민이 있을 때 상담소 및 법률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기관 연계	1366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체험실(키즈카페), 장난감대여 및 수리, 육아정보 나눔, 부모상담 등 다양한 육아관련 프로그램 운영 *가까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찾아보세요!	https://seoul.childcare.go.kr/cccf/main.jsp

청년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월 50만원, 6개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영테크(재무상담) 등 서울시 청년정책의 모든 것을 알게 됨	https://youth.seoul.go.kr/mainA.do
정보풍풍	수많은 청년정책 중 알짜를 모아서 매주 1,3주 목요일에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발송하는 정보채널	https://pf.kakao.com/_xkZAVxb
서울청년기지개센터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https://www.instagram.com/gijigaecenter/

청소년		
도란도란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종합서비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과 그밖에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진단하고 맞춤 도움기관 추천	https://doran.edunet.net/main/view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청소년 가출, 학업중단, 인터넷 중독, 고립은둔 자가검사, 고민 상담 등	전화상담:지역번호+ 1388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 학교·가정생활, 특수교육 상담	https://www.teen1318.or.kr

노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족상담, 취약가정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운영	https://youth.seoul.go.kr/mainA.do

가족		
가족센터	가족상담, 취약가정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봄지원사업 등 운영	https://www.familynet.or.kr/web/lay1/program/S1T1C307/info/view.do *가까운 가족센터를 찾아보세요

산불 재난지역 긴급구호 활동



4월 7일(월)~8일(화), 이들 동안 사회봉사부(부장 박재천 장로)에서는 산불 재난지역인 안동시 임하면, 영양군 석보면을 중심으로 긴급구호활동을 펼쳤다. 이를 위해 3월 30일(주일)부터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한 특별봉헌과 함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고, 김주용 위임목사를 비롯한 2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구호 물품을 싣고 4월 7일 새벽기도회 후 경북으로 출발했다. 첫날은 안동시 임하면에 소재한 임하교회 청소와 전기·수도 보수, 마을회관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저녁에는 경안노회를 방문해 피해를 입은 노회교회들을 위해 스마트폰 충전기 및 생활용품 키트를 전달했다. 저녁식사 후 영양군으로 이동, 홍림산자연휴양림에서 숙박하고 아침에 석보면으로 달려가 참담하게 불 탄 마을을 둘러보고 화매목양교회와 마을회관을 찾아 위로와 함께 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산불 재해에 대한 피해 진단이 끝나지 않은 터라 보상 문제로 더 이상의 복구 활동을 펼칠 수 없었지만 2~3개월 후 본격적으로 복구가 시작되면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고 한다. 교회에서는 각 부서들과 연합해 여름 사역으로 산불 재난지역을 방문해 다시 구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 박현미 편집장

▶자원봉사자 명단(총 20명): 김주용, 계대운, 오한빛, 김환, 이진우, 박주안, 조창우(이상 교역자), 길정순, 김진호, 남미열, 박예송, 박재천, 서호석, 윤현중, 이유정, 임인수, 장선업, 최계숙 최형규, 한정호(이상 직분·성별 생략, 가나다순)

▶구호 물품: 핸드폰 충전기 300개, 치약·칫솔세트 300개, 생수 2리터 960병, 타올 100장, 두유 및 과일, 구호금 400만원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지난 3월 21일, 경북 지역에 산불이 발생했다는 뉴스를 접했다. 일주일 내내 불이 꺼지길 바라며 진화될 듯 말 듯, 오히려 다른 지역으로 번졌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내 속도 함께 타들어 갔다. 꺼지지 않는 불이 아속했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때로는 원망하는 마음도 들었다. 불이 꺼지고 교회에서 산불 피해 지역에 긴급 구호 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연차를 내어 바로 신청했다.

안동으로 향해 도착한 그곳, 처음 마주한 풍경은 참담했다. 멀리서 산을 봤을 때 구름 그림자로 산들이 군데군데 그늘져 검은 줄 알았으나, 불에 타고 그을린 산의 모습이었다. 버스에서 내려 교회로 걸어가는 현장에는 여전히 탄내가 남아 있었고,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적막과 황폐함만이 남아 있었다. 지나가는 풍경마다 마음이 아려왔다. 산불의 피해는 생각보다 훨씬 컸고, 이웃들의 집과 삶의 터전이 무너진 풍경들을 보니 가슴속에 먹먹함이 가득해졌다.

피해가 가득한 땅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국가의 피해 조사와 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복구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해 복구에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복구가 시작되기 전까지 불타 사라진 삶의 터전을 바로 곁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가혹하고 무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현지에서 만난 목사님과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았다. 그날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던 어르신들, 말을 잊지 못하고 잠시 멈춰 울음을 삼키던 목사님. 그 앞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그제야 우리가 이곳에 온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함께 아파하고, 들어주고, 기억해 주는 일. 그 자체가 위로가 되길 바랐다.

마울회관에 머물고 계신 할머니께 물품을 전해드릴 때, 울먹이며 “고맙다”고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우리가 한 일은 작고 평범했지만, 이 작은 발걸음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길 바란다.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이 단 몇 시간 만에 사라졌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부디 하나님의 위로와 손길이 그 상처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

이번 산불로 인해 전소된 가구가 3,900여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피해 조사가 빠르게 마무리되고, 복구가 시작될 때, 많은 손길이 이 땅에 모여 위로와 회복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또한, 이 재해를 계기로 정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국가기관에서 더 나은 대응책과 제도를 만들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가득하다.

‘주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곳의 모든 생명 위에,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여지길 소망합니다.’ / 최형규 성도(비청년부)

연동숲속아기학교 7기 수료식



4월 26일(토) 가나의집 3층 영아부실에서 '연동숲속아기학교 7기'수료식이 있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습3:17)’라는 주제로 3월 29일부터~4월 26일까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2시30분까지 생후 18~48개월 어린이와 양육자들은 다양한 활동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4주차에는 말씀 활동뿐만 아니라 부모교육시간으로 아빠의 심터, 엄마의 심터를 통해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심’의 시간을 가졌다. 부모와 떨어진 자녀들이 감사하게도 교사들과 함께 잘 있어주어 가능한 시간이었다. 마지막 5주 수료식은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걸어나온 아이들이 수료증과 선물을 받고 다같이 사진을 찍으며 마무리하였다. 아기학교를 위해 각자의 달란트를 사용해 섬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 아이들과 양육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귀한 시간이었다. / 박윤신 기자

세계선교위원회, 선교지 후원 연장

3월 29일(토) 세계선교위원회(위원장 최은주 장로)는 정기회의에서 만기가 도래하는 부르키나파소(박소현 선교사), 멕시코(오베드로 선교사), 시카고방송국의 후원기간을 연장하였다. 이어 청장년부 인도네시아 단기선교 진행 경과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고가 진행되었다.

최근 몇 년간 환율의 급등으로 국내로부터 후원받는 여러 선교지들이 실질적인 후원액의 감소를 겪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선교지에 1회성 특별 후원을 연초에 의결하였던 바 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기쁨을 선교지와 나누는 의미에서 4월에 집행하였으며 각 선교지로부터 많은 감사의 소식이 전해졌다. 4월에 교회 앞마당에서 주일학교가 진행한 책 바자회의 수익금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페루의 안길태 선교사께 전달되어 현지 주일학교 교재 편찬에 귀하게 쓰이게 되었다. 안길태 선교사는 연동교회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행사에 참여한 주일학교 학생들과 가정들의 참여를 통하여 선교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에 더하여 주일학교가 주일학교를 돕는다는 아름다운 사례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날 회의를 마친 후, 그간 세계선교위원회를 담당하셨던 박요한 목사님과 식사를 하며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윤중훈 안수집사(세계선교위원회 총무)

음악찬양부 수련회와 헌신예배



수련회

3월 29일(토)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여전도회, 연못골, 부용, 게일 찬양대와 찬양선교단이 함께하는 음악찬양부 (부장 김진양 장로) 연합수련회가 본당에서 열렸다. 오전에는 김주용 위임목사가 예배의 말씀을 전하고, 초대 강사로 오신 김재창 성악가이자 지휘자(월드사프 대표, 치마로사국립음악원 출신)가 찬양을 위한 ‘호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강을 하였다. 오후에는 각 파트별로 나뉘어 찬양 연습을 한 후 다시 모여 함께 연합 찬양으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헌신예배



수련회 다음 날인 3월 30일(주일) 오후예배는 음악찬양부 헌신예배로 드렸다. 예배는 김진양 장로의 인도로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을 부른 뒤 연못골찬양대 부총무 박영란 집사의 기도와 연못골찬양대 베이스 파트장 진상협 집사의 말씀 봉독(빌2:12-14) 후, 박요한 목사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후 모든 찬양대원의 헌신서약이 대표 황보성목 안수집사(연못골찬양대 총무)의 선창으로 진행되었고, 이어서 김주용 위임목사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다. 끝이어 각 찬양대가 한 곡씩 총 다섯 곡의 특별찬양을 드렸다.

[특별 찬양]

믿음의 축복(김민식 곡)	여전도회찬양대
시편23편(최덕신 곡)	연못골찬양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신보미 곡)	부용찬양대
참 아름다워라(Lloyd Larson 편곡)	게일찬양대
주의 옷자락(임금수 곡)	연합찬양대

/ 진상협 기자

한식일 합동추모예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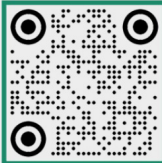
4월 5일(토) 오전 11시 연동동산에서 '한식일 합동추모예식'이 있었다. 김진호 장로의 인도로 찬송(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박광홍 은퇴장로), 성경봉독(임백송 안수집사)이 있는 후 계대운 목사의 '많은 열매의 증거(요 12:24)' 제목의 말씀이 이어졌다. 말씀을 통해 이전의 모습이 사라져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으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얻었고 우리는 곧 아름다운 열매의 증거임을 전하였다. 이후 찬송(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을 부르고 계대운 목사의 축도로 추모 예식을 마쳤다./ 박윤신 기자

스마트 성도앱 요람 재설치



**GET IT ON
Google Play**

삼성 갤럭시 (Android)
구글 플레이에서
'디모데 스마트 성도앱' 다운로드



**Download on the
App Store**

애플 아이폰 (iOS)
앱 스토어에서
'디모데 스마트 성도앱' 다운로드

4월 13일(주일) 향촌직 선거를 앞두고 교인들이 스마트 성도 앱을 새로 설치할 수 있도록 더게일홀에 설치부스를 운영했다. 스마트 성도앱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돕기 위한 앱(App)으로 주부 확인, 교회 장소/차량 예약, 교우 동정(결혼/장례), 교회 유튜브 채널 연결, 홈페이지 연결, 교회 행사 사진, "연못골" 열람, 향촌직 선거 시 교인증(QR)으로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된다. 새가족은 상·하반기 수료식에 참여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전에 사용하던 스마트 요람은 **사용 중지 예정으로 스마트 성도앱을 새로 설치**해야 한다. 앱 설치의 사무처 김종은 집사에게 문의하면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김종은 기자

은퇴장로회 창립총회



회순 채택, 경과 보고 후 임원 인준 등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 은퇴장로회는 회원들 친목을 위주로, 야외 친교행사, 환자 심방, 상가 조문, 생일축하 행사, 교역자 및 직원 위로 행사와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날 오인택 원로장로는 “오랜 숙원이었던 은퇴장로회를 창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좋은 교회 연동교회에서 시무한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였기에 본향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나라와 연동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자”고 간절함을 담아 인사말로 전했다. 제1회 월례회는 5월 15일(목) 베들레헴예배실에서 열렸다. / 박현미 편집장

▶월례회: 매월 두 번째 목요일 오전 11시 베들레헴예배실 / 회비: 월 1만원 / 회원: 원로 및 은퇴 장로 50명(남 42, 여 8)

▶회장: 오인택, 총무: 오세정, 서기: 추후 예정, 회계: 최영익, 감사: 박행본

‘연주모’ 상반기 체력단련 모임



4월 12일(토) 연주모 회원들은 험난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안성에 위치한 금광호수하늘공원 주변의 산악 코스에서 2025년 상반기 체력강화훈련을 가졌습니다. 연주모는 연동교회의 어려운 주차환경 해소와 교우들의 주차 편의를 위해 투철한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모인 20명의 요원을 모입니다. 뜨거운 여름철의 피약별을 이겨내고, 한겨울 살을 예이는 칼바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한 체력과 정신력을 필요로 하기에

우리 연주모는 매년 봄, 가을에 정기적인 체력강화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힘들고 어려운 훈련이었지만 오직 교우들의 뜨거운 신앙생활, 편리한 교회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후원과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아울러, 주차를 사랑하고 봉사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의 참여를 언제나 환영하고 고대합니다. / 박종화 피택장로(연주모 총무)

▶가입 문의: 박종화 총무(010-9137-5322)

성례주일 세례식



2025년 4월 13일 성례주일 2부예배 시간에 입교·세례식이 있었다.

세례 : ①정지훈(남/쌍쌍연동8구역)

입교 : ①고서울(여/분당구역) ②김민건(남/쌍쌍연동9구역) ③김유나(여/명일하남구역) ④전하은(여/쌍쌍연동7구역)

새가족 소개



유경희(2교구, 강서구역), 이명숙(1교구, 상계중계구역)



이재건·장미래(1교구, 명륜연건구역)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성경에서 외개란?

~ 사람이 (외)에 대한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하고 그 (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 곧 외개는 (내적인) 마음의 결단과 더불어 (외적인) 행함으로도 나타나는 것이다.

진흙이란?

세상 안락은 사실 거짓이다. 세기를 신명하는 이 행위야말로 세속과 함께 하는 문란한 기술이다. 바깥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뿐 속에서는 진흙이다. 우리 조상들 (내) 사탄성과 구별은 온전히 바깥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깥으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영적인 진한(금번의 순간)

1) 죄악의 물 세척고 (영적)
2) 죄악의 물 세척고 (영적)
3) 영혼의 아픔으로 세례를 받을 때
4)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어는 동시에 이루어진다.

기독교의 핵심 대목

영적인 진한(금번의 순간)

이 대목, 기독교의 핵심 대목, 영적인 진한(금번의 순간)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영혼의 아픔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영혼의 아픔으로 세례를 받을 때, 영혼의 아픔으로 세례를 받을 때

4월 14일(월)부터 19일(토)까지 오전 5시 30분(토요일 6시) 본당에서 김주용 위임목사의 말씀으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드려졌다. 설교는 '경건의 기초'를 위한 6개의 주제로 이어졌는데, 'Day 1'부터 'Day 5'의 주제는 회개-믿음-세례-기도-심판의 순서로, 마지막 토요일 'Day 6'의 주제는 부활이었다. 올해는 특별새벽기도회 핸드북에 설교노트가 정리되어 있어서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매일 교구별로 특송을 준비했는데 특별히 토요일에 비청년공동체의 특송은 설교 주제처럼 '부활'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었다. 사순절 첫째 주일부터 지켜온 '영성 훈련 십계명'에 이어서,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경건"에 대해 묵상하고 실천하게 했던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 양진실 기자

4월 14일(월) 오전 5시 30분	
찬송	259장(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기도	강사겸 장로
성경	시편 51:13-17
특송	1교구
말씀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결단찬양	정결한 맘 주시옵소서

4월 16일(수) 오전 5시 30분	
찬송	182장(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기도	이정민 장로
성경	사도행전 4:29-32
특송	3교구
말씀	세례: 인생의 전환점
결단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4월 18일(금) 오전 5시 30분	
찬송	265장(주 십자가를 지십시오)
기도	강철민 장로
성경	로마서 2:1-12
특송	5교구
말씀	심판: 진리에 따라 행함으로, 그러나 외모가 아니라 계시대
결단찬양	예수 피를 힘입어

4월 15일(화) 오전 5시 30분	
찬송	374장(나의 믿음 약할 때)
기도	김진양 장로
성경	히브리서 11:1-3, 6
특송	2교구
말씀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
결단찬양	세상 흔들리고

4월 17일(목) 오전 5시 30분	
찬송	310장(아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	김이순 장로
성경	민수기 27:18-23
특송	4교구
말씀	기도: 은혜의 통로
결단찬양	은혜

4월 19일(토) 오전 6시	
찬송	95장(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기도	심현숙 장로
성경	고린도전서 15:51-58
특송	비청년공동체
말씀	부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
결단찬양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전교인 교회 대청소 실시



4월 19일(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마치고 전교인 교회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친교부에서 준비한 국밥을 먹고, 각 교구별로 맡은 구역을 열심히 청소했다. 각 교구별 담당구역은 1교구는 베들레헴예배실, 3층 화장실 벽면, 2교구는 오병이어의집(주방포함), 3교구는 3층 찬양대실과 4층 찬양대실, 4교구는 나사렛예배실과 4층 화장실 벽면, 5교구는 더게일홀과 2층 화장실 벽면, 청년부는 가나의집 열림홀, 직원들은 드보라의방을 각각 청소했다./ 김종은 기자

“소리터” 버스킹 공연



4월 20일 부활주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 후 교회마당에서 “소리터”의 버스킹 공연이 있었다, “소리터”는 토요일 오전 7시에 모여 찬양과 옛노래를 함께 부르는 소모임으로, 2월 8일 개강하여 312호 찬양대실에서 모이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모여’ 등 사랑받고 있는 찬양 7곡을 연주하며, 교인들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찬양을 사랑하는 교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참여 문의는 한정호 집사에게 하면 된다. / 고현수 기자

부활주일과 축하음악예배



4월 20일(주일) 부활주일을 맞아 1,2,3부 예배 후에 부활절 달걀을 전 교인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예쁜 화분을 하나씩 나눠드리는 시간도 있었다. 특히 노래배우기 소그룹 모임인 소리터에서 2부 예배 후와 3부 예배 후에 교회마당에서 첫 버스킹을 하였고 차 나눔도 함께했다. 이 날 예배는 로마서 12장 1-8절 성경봉독(1부-전영혜 권사, 2부-김선미 권사) 후에 심현숙 장로(1부), 이호진 장로(2부) 기도가 이어졌고 연못골찬양대(1부)의 “다시 사신 주 보라”(Lloyd Larson곡), 부용찬양대(2부)의 “면류관 가지고”(David T. Clydesdale 편곡), 게일 찬양대(3부)의 “다시 사신 구세주”(우현원 곡) 찬양에 이어 김주용 위임목사가 “부활절 로마서강해III (1) 은혜에 따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후예배는 부용찬양대가 주관해 부활주일 축하음악예배로 드렸다. 부용찬양대 대장 강석주 피택장로의 인도로 예배가 시작되어 하늘찬양팀의 찬양 후에 신현철 성도(총무)의 기도와 김은주 집사(서기)의 성경봉독(누가복음 24장 39절) 후에 김주용 위임목사가 “부활의 의미 : 정직의 승리”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2부 순서로 축하찬양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 진상협 기자

[축하 찬양곡]

1. 예수님 그분은
2. 왕이 오신다
3. 사랑 때문에(Brass 김진호)
4.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Alto 박지호)
5. 부활의 날
6.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주(Violin 표상화)
7. 승리의 주, 기쁨의 찬양



제209회 서울노회



4월 26일(목) 제209회 서울노회가 연동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접수하고, 오전 9시 개회예배로 시작되었다. 노회장 이승철 장로(을지로교회)의 인도, 기도 박종서 장로(연동교회), 부서기 김성경 목사(연지교회)의 성경봉독(마태 27:62-66, 28:11-15)후, 연동교회 여전도회 찬양대의 찬양이 있는 후 전 노회장 이수영 목사의 설교(주님의 부활, 진리의 승리) 말씀이 있었다. 예배 후 성찬성례

전이 있었으며, 이후는 총대 선출 투표가 있었고, 각부보고 및 회의가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다. 오후 4시부터는 11분의 목사 임직식이 있었다. 모든 회의와 예배를 마치고, 부교역자와 직원들은 합심하여 본당과 오병이어의집, 마당 등을 정리하였다. 우리교회에서는 친교부와 권사회에서 간식을 준비하고, 점심식사는 교회 앞 기독교연합회관에서 갈비탕으로 대접했다. 노회 총대 500여 명 참석하였다. 이번 노회에서 110회 총회 총대로 김주용 위임목사, 박종서 장로, 최현수 장로가 선출되었다. / 김종은 기자

제3여전도회 수련회



4월 26일(토) 제3여전도회(회장 김경미 권사)는 계대윤 목사의 기도 후 '도자골 달뎌'에서 십자가 만들기 체험으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예배 드린 후 윤석경 타교권사(도자골 달뎌 대표)의 지도로 각자의 십자가를 만들고 아름다운 정원에서 식사하며 봄날의 햇살과 함께 행복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윤석경 타교권사의 진행으로 22명의 회원들은 '나의 십자가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소개 시간을 통해 서로를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보냈다. / 김예주 권사(제3여전도 교육부장)

제101차 새참음악회

총회 문화법인에서 주관하는 새참음악회(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새참' 같은 작은 음악회)가 4월 30일(수) 더게일홀에서 열렸다. 연주자로 나온 소프라노 최예은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를 졸업 독일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오페라과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으며,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군산대학교 등 출강과 국내 전문연주자로 활동 중이다. 피아니스트 홍세롬은 독일 아욱스부르크 국립음대 피아노과 솔로 및 피아노 교수학 석사를 졸업하고 독일 바인츠 국립음대 성악 반주 및 음악코치 석사를 졸업했다.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반주 강사 및 전문 반주자로 활동 중이다. / 김종은 기자



소그룹 '연뫼동이'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



4월 26일(토) 소그룹 '연뫼동이'는 회원 16명과 함께 낙동강 세평하늘길 트레킹을 다녀왔다. 이번 모임은 청량리역에서 새벽 6시 26분 KTX를 타고 출발해 영주를 거쳐 브이트레인으로 이동했다. 트레킹 구간은 총 12.1km로, 예상보다 1시간 더 걸려 총 5시간만에 완주했다. 이번 트레킹에서 양원역-비동 구간은 세평길 중 일부가 유실되어 참가자들이 신발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채 강을 건너는 이색 경험을 하기도 했다. 양원역은 주변 주민들에 의해 직접 세워진 역으로 유명하며, 이를 모티브로 2021년에 영화 '기적'이 제작되기도 했다. 회원들이 싸온 다양하고 풍성한 간식 덕분에 지치지 않고 즐겁게 트레킹을 완주할 수 있었고 트레킹 후에는 분천역 근처 산타마을에서 늦은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 8시가 다 되어 청량리역에 도착하며 감사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 이만희 피택장로

*참석자(총 16명): 강용국, 김형기, 나승호, 문우철, 박영만/조진숙, 박종서, 심지연, 안명훈, 안창익, 이만희, 이선복, 이수진, 이준일, 임종남, 최은경(직분, 성별 생략, 가나다순)

4교구 야유회



4월 25일(금) 4교구는 강북구 우이동에 위치한 하이그라운드 제빵소에 50여 명의 교구원들과 함께 야유회를 다녀왔다. 제빵소 2층 콘서트홀에서 모임을 진행하였다. 김환 목사의 지도로 시작된 야외모임은 미리 며칠 전에 주문해놓은 베이커리와 음료를 맛보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도권사이신 양연화 권사의 사회로 각 구역장들이 구역원들을 소개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고, 급조된 찬양팀인 정금실 권사, 윤영란 권

사, 정선영 권사, 정경아 집사, 최은숙 집사와 함께 모두 일어나 울동으로 찬양하며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주님 안에서 웃음꽃 가득한 은혜를 경험했다. 또한 최현수 장로가 구역원들의 찰떡 호흡을 테스트하는 레크리에이션을 진행하였다. 이어서 야외 마당으로 나가 살랑이는 봄바람과 멋드러진 나무와 꽃들 속에서 담소를 나누며 삼삼오오 멋진 포즈로 사진 촬영을 했다. 4교구는 이번 야유회를 통하여 주님 안에서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되었고, 교구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맘껏 누리는 감격과 은혜의 하루를 보냈다. / 정경아 집사(4교구 부총무)

권사회 수련회



4월 30일(수) 권사회(회장 박문숙 권사)는 45명의 회원과 김주용 위임목사, 이건희 목사와 함께 529차 월례회를 겸한 수련회를 강화도에서 진행했다. 오전 10시 30분 강화수양관에 집결해 이건희 목사가 인도하는 찬양으로 은혜롭게 예배의 문을 열고 박문숙 권사 인도로 라신현 권사의 기도, 김주용 위임목사의 '사과나무' 말씀(아가8:5-7)과 특별기도회로 예배를 드렸다. 예배 후 회무처리와 소경훈 권사의 폐회기도로 월례회를 마쳤다.

권사들은 강화수양관에서 준비해준 점심식사를 마치고 단체사진 후 인근의 국화저수지로 이동했다. 오랜만의 맑은 햇살과 청량한 바람을 맞으며 즐겁게 저수지 산책길을 걸은 후 조양방직카페로 옮겨가 교회 각처에서 일하느라 만남이 어려웠던 권사들과 오랜만에 흥겨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 박현미 편집장

성경통독세미나



5월 8일(목)부터 10일(토)까지 본당에서 영성훈련부(부장 최은주 장로) 영성훈련팀(팀장 강용국 안수집사)이 주관하여 'YD 성경통독 세미나'를 실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성도들이 성경통독 때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문범 목사(사랑누리교회 담임목사, 두란노 바이블칼리지 강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8일(목)에는 성경개관, 9일(금)에는 출애굽 여정과 바울선교 1, 9일(토)에는 바울선교 2,3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별히 성지지도를 활용하여 바울의 1,2,3차 선교지와 사도행전 말씀을 현실감 있게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122명의 성도가 참석하였다.

/ 윤복기 집사(영성훈련팀 총무)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



5월 4일(주일) 3부 예배는 어린이주일로 모든 교회학교 부서가 함께 본당에 모여 온세대예배로 드렸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교회학교 학생과 어린이들이 이어갔다. 중등부 전하는 학생의 기도 후에 유아부와 유치부 어린이(강효원, 방지오, 최건, 이주아)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나와 시편 78편 7-8절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봉독하는 모습은 감동과 웃음을 주었다. 게일찬양대와 주니어콰이어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김주용 위임목사의 '주/유/소로 갑시다(시78:7-8)'제목의 말씀에 이어 주니어양상블&주니어콰이어가 특별한찬양으로 어린이찬양메들리를 들려주었다. 축복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친 뒤 교회 마당에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으며 어른도 어린이도 모두 행복한 어린이주일일을 보냈다. / 박윤신 기자



온세대예배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o3t1AOCqpTs>

어버이주일 경로잔치



5월 11일 어버이주일을 맞아 연동 HI청년공동체 주관으로 어버이주일 경로잔치가 진행되었다. 임원단을 중심으로 행사가 꾸러졌으며 꽃 나눠드리기와 7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식사 대접으로 구성되었다. 꽃 나눠드리기는 1부 예배부터 3부예배까지 예배 시작 전후로 진행되었다. 청년들은 장미꽃 천 송이를 준비해 본당 정문과 사무처 쪽 입구에서 부모님들께 나누어드렸다. 꽃을 받아 드신 부모

님들은 환한 미소로 화답해주셨다. 오병이어의 집에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해드렸다. 행사를 위해 임원단은 전날부터 식당을 꽃과 풍선으로 예쁘게 꾸며놓기도 했다. 음식 준비는 제직분들도 함께 수고해주셨다. 청년들은 배식, 서빙, 설거지를 도맡아했고 화목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어버이께 감사함을 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느낀 귀한 시간이 되었다. / 남다른 기자

봉사자 범위를 넓힌 ‘러브릿지온’

러브릿지온은 종로구 창신동 쪽방촌 인근의 기초수급자 및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나누는 사역입니다. 연동복지재단과 연동신협이 주관하여 HI청년부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마다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3월부터는 HI청년부 일정과 별도로 당회원들을 비롯해 남녀선교회까지 봉사자 범위를 넓혀 매월 부서들이 돌아가며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박현미 편집장



당회원 3월 8일(토) 김주용 위임목사를 비롯한 교역자 6명, 장로 12명 참여.

“혼자 사시는 쪽방촌 어르신들께 좁은 골목골목을 찾다니며 여러 가지 생필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진작 와 보지 못했음에 먹먹하고 송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나는 어르신들 모두에게 꾸러미를 드리고 싶습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해서 감사했고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겠습니다.”(여명선 장로)

권사회 4월 12일(토) 권사 18명이 참여해 5조로 나뉘 30가구에 12가지 생필품 전달.

“좁은 골목 한 칸에 누군가 심어 놓은 예쁜 꽃을 보며 괜히 안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방문과 작은 꾸러미들도 그분들에게 위로와 안도가 되면 좋겠습니다.”(A권사)



안수집사회 5월 10일(토) 안수집사 8명 참여해 위즈덤하우스에 모여 물품 분배 후 쪽방촌 30가구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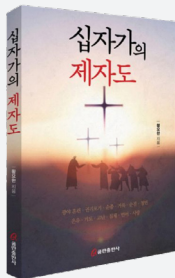
“작고 어두운 한 평 방에서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하늘을 볼 수 있게 벽에 참문을 내 드리고 싶었습니다.”(B안수집사)

여전도회찬양대 수련회



5월 13일(화) 여전도회찬양대(대장 김인혜권사)는 은퇴선교사들의 마을인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로 수련회를 다녀왔다.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수마를 채플실에서 예배를 드린 후 러시아산 홍송을 주재료로 하늘을 향해 통나무를 잘라 수직으로 세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상징으로 설계된 웅장하면서도 예술감각을 지닌 예배당을 견학하였다. 예배당 주변의 자연경관을 둘러본 뒤 맛있는 점심과 차를 마시며 대원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원영숙 권사(여전도회찬양대 서기)

황창연 선교사, “십자가의 제자도” 출간



2022년까지 연동교회 선교사로 후원 받았던 황창연(황요한) 선교사가 30년간 선교를 통해 얻은 십자가 영성을 토대로 “십자가의 제자도”를 출간했다. 이 책은 중국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다룬 “광야에 세우는 십자가”의 후속편으로, 선교현장에서 사색하고 실천한 ‘십자가 영성으로 사는 제자도’를 정리한 것이다. 기독교 본질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으로 사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본질을 잃어가는 이 시대에 저자는 십자가의 영성을 외치며 교회를 향해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 박현미 편집장

5, 6월 행사안내

월	일	행사(예정)
5	1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4일(주일)	어린이주일, 온세대예배(3부), 향존직 선거(장로 2차선거), 제직회(오후 3시, 본당)
	8일(목)-10일(토)	성경통독세미나(본당)
	10일(토)	러브릿지-ON(溫)_안수집사회
	11일(주일)	어버이주일, 향존직 선거(장로 3차선거)
	15일(수)	여전도회월례회(오전 11시, 본당)
	18일(주일)	청년주일, 향존직 선거(안수집사, 권사 1차선거)
	21일(수)	권사회 월례회(오후 2시, 드보라의 방)
	22일(목)	은퇴권사회 수련회
	23일(금)	교구 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5일(주일)	트리니티 주관 찬양예배(오후예배 시, 본당)
	31일(토)	러브릿지-ON(溫) 청년부
6	1일(주일)	기독교가치관팀 세미나(오후예배 시, 본당)
	5일(목)	목요기도회(오후 7시, 베들레헴예배실)
	8일(주일)	환경기념주일
	11일(주일), 15일(주일)	사랑의쌀 나누기 행사
	14일(토)	러브릿지-ON(溫) 1여전도회
	18일(수)	구역장 성경공부 종강
	20일(금)	구역장 위로회
	21일(토)	러브릿지-ON(溫) 청년부
	22일(주일)	북한선교주일, 기드온 순방 주일
	25일(수)	실버아카데미 종강, 권사회 월례회(오후 2시, 드보라의 방)
	26일(목)	은퇴권사회 월례회(오전 11시, 베들레헴예배실)
	27일(금)	교구 전체모임(오전 10시 30분, 본당)
	29일(주일)	상반기 새가족 전체 만남의 날(오후 1시 30분, 베들레헴예배실) 상반기 새가족 수료예배(오후예배 시, 본당)

교회 첫 출석 아기

4월 6일 3부 예배



정윤성 아기 (남, 2025년 1월 3일생)

김희경 집사 외손자

소중한 기적 윤성아! 엄마 아빠한테 건강하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부족한 엄마 아빠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함께 성장해나가자! 너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 항상 고맙고 사랑해~~♥

유아세례

4월 6일 3부 예배



이윤슬 (여, 2024년 4월 18일생)

이건희 목사, 이꽃아름 사모의 딸

사랑의 하나님!

이윤슬이 자라며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의 사랑 충만하게 받으며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가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에 해를 입지 않게 지켜주시며 주와 함께 늘 동행하는 딸 되게 해주세요.



최수빈 (여, 2023년 1월 11일생)

최영준 성도, 한주영 집사 딸/5교구 쌍쌍연동8구역

사랑하는 수빈아, 수빈이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원한 삶을 누리길 엄마 아빠가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하고 축복해!



한준 (남, 2024년 5월 23일생)

한왕수 성도, 안아영 성도 아들/3교구 압구정청담삼성구역

한기석 은퇴장로, 최민자 권사 손자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신 준이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준이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스스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삶의 여정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마주치게 될 풍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주어진 길을 굳건히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에게 사랑받고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줄 아는 따뜻한 아이로 자라게 하시옵소서.

연동복지재단 (상임이사 최현수 장로)



3,4월 러브릿지“溫(ON)” - 쪽방촌에 피어난 온정!

3월 8일과 22일, 4월 12일과 19일(토)에도 러브릿지온 사역이 진행되었다. 매월 격주로 두 번, 80명의 독거노인과 5가구의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지원하며, 매월 필요한 물건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 앞으로도 러브릿지온은 정기적인 나눔을 통해 이웃 결을 지키며 따뜻한 돌봄을 이어갈 예정이다. 작은 손길이 모여 큰 사랑이 되는 현장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연동어린이집(원장 조주은 집사)

입학행사 그린데이 - 연동어린이집에 온 걸 환영해

3월 11일(화) 입학 후 일주일의 적응기간을 보내고 연동어린이집에 온 걸 환영하는 입학행사가 진행되었다. 선생님들과 새로운 친구들과 서로 인사하며 우리반 선생님 외에도 도와주시는 다른 선생님들을 익히고 '푸르른 새싹처럼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를 담아 아이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동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수미)



4월 우쿨렐레 선물로 자라는 아이들의 꿈

연동지역아동센터는 4월부터 매주 화요일, 특기적성교육의 일환으로 우쿨렐레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론과 실습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여러 해 동안 지속되면서 아동들이 음악적 기초를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특히 아동들에게 친숙한 동요를 활용한 수업 방식이 큰 호응을 얻었다. 우쿨렐레 코드의 손가락 모양을 익히며 리듬있게 곡을 연주하는 과정에서 아동들의 흥미와 집중도가 높아지고, 합주를 통한 협응력도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

신협 현황

(3월 31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38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581,701	40,021,497	2,060,620	1,052,176	48,715,994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428,371	719,259	53,710	14,514,654	48,715,994

(4월 30일 현재) 총 조합원수 : 2,636명(단위:천원)

부채 및 자본금	출 자 금	예탁 및 적금	적 립 금	기타 부채	합 계
	5,705,230	39,589,288	1,958,619	869,109	48,122,246
유동 자산	총 대출금	투 자 금	현 금	제 세 금	합 계
	3,350,2463	709,556	68,359	13,841,868	48,122,246

목양위원회

■결혼식

- 이지수(이준형 성도, 김수정 집사 딸/잠원반포구역) 양과 박상우(박진일 님, 김정현 집사 아들) 군 - 5월 3일(토) 오후 12시 연세대 알렌관(아외예식)
- 이주영(이병수 장로, 신정현 권사 딸/청년부) 양과 이인용(이희택 안수집사, 김금이 장로 아들) 군 - 5월 3일(토) 오후 1시 본 교회당
- 전찬호(전근표 이명장로, 홍성미 성도 아들/효제구역) 군과 강민수(강석진 님, 장경자 님 딸) 양 - 5월 24일(토) 오전 11시
더채플 앳 청담 6층 채플홀
- 박기현(박영안 님, 서형단 집사 아들/청년부) 군과 최지인(최중섭 장로, 김용임 권사 딸/청년부) 양 - 5월 24일(토) 오후 1시 본교회당
- 조은채(조규환 선교사, 이미숙 선교사 딸/고양구역) 양과 우동규(우승환 님, 박기람임의 아들) 군 - 5월 24일(토) 오후 3시
파티움하우스 수원 3층 파티움 홀

■장례식

- 김이중 은퇴집사(전귀남 성도 남편, 김선혜 성도, 김선일 집사 부친, 임경선 집사 시부/길음구역) 별세, 3월 22일 연동동산에 모심
- 김성숙 공로권사(박일규 성도, 박혜진 집사 모친, 김유정 성도 시모/압구정청담삼성구역) 별세, 3월 23일 분당추모공원 휴에 모심
- 장옥매 성도(이세영 은퇴집사 모친/일산구역) 별세, 3월 25일 백합의 뜰에 모심
- 윤윤자 은퇴장로(고진선 안수집사 모친, 차시는 집사 시모, 고은서, 고에서 성도 조모/구리남양주양평구역) 별세, 3월 27일 백합의 뜰에 모심
- 이종애 명예권사(윤은섭 성도 모친/마포용산구역) 별세, 4월 12일 파주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에 모심
- 최영현 장로(최은복 권사 부친, 강사겸 장로 장인, 강희수 성도 외조부/개포수서구역) 별세, 4월 21일 이천 호국원에 모심
- 이광본 은퇴집사(김학수1 은퇴집사 부인/의정부구역) 별세, 5월 3일 장례식 거행



(이름:

연락처:

소속:

)

2-3월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5,000원 상품권)



김성수(명일하남)-9147



성열숙(낙산1구역)-0647



이영우(쌍성연동7구역)-0905



진예현(초등부)-0117

김성준(초등부)-7854, 남상욱(효제)-4380, 조선영(명일하남)-7541

*4-5월호 연동컬러링에 색칠해 사무처 혹은 연못골 이메일(ydpc3000@gmail.com)로 보내주세요. 추첨해 상품권(5000원)을 드립니다. 색칠하기가 돋보인 컬러링은 다음 호에 실립니다. 주일학교 학생은 소속 부서를 꼭 적어주세요.



연못골 제 57권 620호

- 창간일 1969년 1월 26일
- 발행일 2025년 5월 18일
- 발행인 김주용 편집인 김성영 지도목사 계대운 편집장 박현미
총무 진상협 원고접수 ydpc3000@gmail.com
기자 고현수 김중은 박동진 박윤신 송재호 양진실 이경아 이지원 임재철
신입 남다은
-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연동교회
(우편번호 03128)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상옥로 37 전화 (02)3676-3000, (02)763-7244
위임목사실 (02)3673-5100 팩시밀리 (02) 745-5905 인터넷 <http://www.ydpc.org>
● 상담실 (02)766-0675 연동복지재단 (02) 3673-0086 강화수양관 (032)932-2929

사진으로 보는 연동



행복한 연동인

당신이 있어 연동이 행복합니다



“당신이 따뜻해서
봄이 왔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우리의, 나의 봄이 따뜻합니다.
고맙습니다!



4-5월호(620호)